

윤석열 대통령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5. 27일 오전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 특설법단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등 조계종 주요 인사들을 비롯하여 김진표 국회의장,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회 정각회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의원 등과 사전 환담을 갖고 4년 만에 마스크 없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한 기쁨을 함께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오늘이 불교 신도들에게 제일 기쁜 날이겠다”며 참석자들에게 덕담을 건넸고, 진우 스님은 “불자들이 대통령께서 직접 오신다고 들은 마음으로 환영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전국의 사찰에 대통령님의 등을 달고 조석으로 축원을 드리고 있다”는 조계종 호계원장 보광스님의 말에 주호영 의원이 “등 값도 못드려 죄송하다”고 하자, 조계종 총회위원장 주경수님은 “나라의 발전과 국민이 행복해지면 그게 등 값 내시는 것”이라고 화답하며 좌중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후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어진 환담에서는 어릴 적부터 이어진 대통령과 불교계의 인연을 비롯하여 2030부산 엑스포유치를 위한 불교계 지원 의지 등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다.

이어서 본 행사에 참석한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보듬고 어루만지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사회의 따스한 등불이 되고 있다”며, “한국불교는 우리 국민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나라가 어려울 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앞장섰다”고 말했다.

또 불교계의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 관련 이재민 구호활동 및 문화유산 보존, 전승 활동과 관련해 감사를 표하며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인권 존중과 약자 보호, 세계 평화의 국정철학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어서 “정부는 어려운 이웃들을 더 따스하게 살피고 국민의 삶 구석구석 희망이 스며들 수 있도록, 그리고 세계시민 모두와 함께 서로 도와가며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축사를 마쳤다.

대통령은 행사가 끝나고 퇴장하면서 뒷편에 자리잡은 동자승 9명을 비롯하여,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정미 정의당 당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과도 악수 했다. 또 빛 속에서도 끝까지 행사를 지켜보고 대통령에게 환호와 박수를 보낸 신도들과도 일일히 악수를 하고 감사를 표한 뒤 행사를 떠났다.

최광수/기자

전남도, 미래사회 능동적 대처창의 융합인재 양성

신안서 '인공지능 비전 캠프'...전문가 특강·현장체험 등

전라남도는 26일까지 2일간 신안군은 씨원리조트에서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창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제1회 인공지능(AI) 비전 캠프'를 운영했다.

'인공지능 비전 캠프'는 인공지능 시대를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융합능력을 지닌 소프트웨어 분야 인재 양성을 목표로 전남

도와 전라남도교육청이 공동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전남지역 고등학생 68명을 선발해 매주 토요일 지역 대학과 연계해 권역별 이론교육을 하고 전라남도는 인공지능의 다양한 활용과 미래 전망을 체험할 체험 과정을 상·하반기 운영한다.

상반기 '2023년 인공지능(AI) 비전 캠프'는 '4차 산업혁명과 미래인재,

챗 지피티(Chat GPT)의 이해와 활용'을 주제로 전문가 특강 및 현장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장광열 전남도 희망인재육성사업장은 “인공지능 분야 이해를 높이고 역량을 키우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미래 주역인 청소년이 역량 있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 / 기자



지방시대! 경북도 지방 외교로 스리랑카 국가변혁 이끈다

스리랑카 정부 새마을 전담부서 설치, 새마을운동 벤치마킹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5~26일 양일간 스리랑카를 공식 방문해 새마을운동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스리랑카 국가 변혁을 위해 새마을운동 등 다양한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국가부도로 인해 심각한 경제난의 돌파구로 새마을운동을 배우고자 하는 스리랑카 정부는 행정안전부 내 새마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새마을운동을 벤치마킹해 “새마을, 새로운 국가!”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디네시 구나와르데나 스리랑카 국무총리는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을 잘 알고 있고, 새마을운동이 사바라가마와주 작은 농촌마을에서 버섯재배로 이미 소득증대에 기여한 바를 직접 체험했다. 경상북도의 경험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새마을운동을 배우려한다”고 언급했다.

또 “한국은 스리랑카 청년들이 취업 위해 가장 선호하는 국가 중 하나이며 많은 스리랑카 청년들이 한국 산업현장에 일하면서 양국 경제발전 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새마을운동 뿐만 아니라 K-pop, K-food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교류협력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5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스리랑카 중앙정부 차관, 차관보, 실국장, 전국 군수 등 고위직 100여명을 대상으로 ‘새마을운동을 통한 스리랑카 대변혁’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펼쳤다.

이 지사는 ‘원조를 받다가 원조를 주는 유일한 나라’인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의 중심에 ‘새마을운동’이 있었음을 소개하고, 한국에서 펼쳐

던 국가변혁 사업과 더불어 새마을 세계화 사업성과 및 향후 경북도와 스리랑카의 협력 증진 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아울러, 경북도가 지방시대를 준비 하면서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역설하고, 경상북도가 추진한 새마을 시범마을 사업을 통해 마을 단위로 이뤄지던 새마을운동이 스리랑카 국가차원으로 확대된 것에 대해 “우리는 조력자일 뿐이다. 스리랑카만의 새마을운동을 펼쳐 ‘켈라니 강의 기적’을 이루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철우 지사는 우수한 스리랑카 학생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일자리를 구하며 부모형제도 한국에 와서 일하며 지낼 수 있다는 점을 소개하고, 지역 대학 및 노동력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과 경북도의 세일즈에도 박차를 가했다.

26일에는 이 지사와 경북도 방문단이 새마을운동 시범마을인 알풀라 마을을 방문해 주민 150여명의 환영을 받으며 새마을교실 증축 준공식, 새마을 케골버섯 재배 현장을 찾아 현지 주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북도는 2011년부터 새마을운동 전수 요청을 받았으며, 2014년 스리랑카 대통령 특사의 2차 요청을 받

고 본격적인 새마을사업을 시작했다.

사업초기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꾸준한 사업시행으로 ‘새마을 케골버섯’이라는 자체 버섯브랜드를 개발했고, 시범마을 조성 후 주민소득이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자립역량강화에 큰 도움을 주며 지역 주민들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은 현지 언론에도 잘 알려져 있다.

한편, 현장에 함께 한 타카라 발라수리아 스리랑카 외교부 정무장관은 “사바라가마와주 4개 시범마을에서 소득증대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월평균 소득이 6천LKR에서 2만LKR로 증가됐다”며 새마을운동의 고무적인 성과를 언급하고, “새마을운동을 통해 스리랑카 전역이 잘 살고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마을주민들과 함께 새마을운동을 전수해 준 경북도에 특별한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스리랑카 내 새마을운동의 전국적 확산은 사바라가마와주의 적극적인 지원과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큰 성과를 달성했기에 가능했다. 앞으로도 자부심을 갖고 스리랑카의 새로운 모습과 발전을 기대하며 힘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주 중심상권 리네상스

대통령 무료개방! 보고 경주 중심상권 구경가자!

경주 금리단 골즈 선향순증정 3만원 이상 구매 고객

불금예찬

먹거리
담자채, 담자정, 해물막걸, 감자장
양념장, 수제어묵, 커피 등.
프리마켓
18~23시, 금요일

거리예술워크

새마을 다양한 공연!
신화 대학악악, 예가백소악, 소공원, 다이너미움 공연

대통령 무료 개방, 야간 미디어쇼
5.4.~6.4. 19시~22시

제56회 경상북도청소년의회 교실 운영

문경 점촌초등학교 학생 25여명과 함께 의정 체험활동 펼쳐

경상북도의회는 문경 점촌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56회 경상북도청소년의회 교실을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난 25일 개최했다. 문경 점촌초등학교 학생 25여명이 참여한 청소년의회 교실에는 박영서 부의장, 김경숙 의원이 직접 학생들을 맞이하고 의정활동 체험활동을 격려했다.



학생들은 스스로 작성한 조례안과 건의안에 대해 도의회 본회의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입법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도의원의 역할과 지위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금번 청소년의회교실은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닌 한국 땅인 이유", "편식을 하지 맙시다"란 주제로 2건의 3분 자유발언과, "핸드폰 구매 연령 제한에 관한 조례안", "초등학교 쉬는 시간 연장에 관한 조례안", "화장실 문 세로 길이 확장에 관한 건의안", "학교 동물 보호구역 설치에 관한 건의안" 등 총 6건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고, 찬반 토론과 전자투표를 진행하여 의결을 했다. 박영서 부의장은 환영인사를 통해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 곳은 61명의 도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펼치는 본회의장이며, 오늘 경상북도의회에서 1일 도의원 체험을 통해 평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 이런 과정을 체험해보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김경숙 의원은 "어렸을 때 꿈을 가지고 도전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오늘 도의회에서의 체험활동이 학교 생활에서 친구들과도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앞으로 여러 가지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큰 인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날 참여한 학생들은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토론을 직접 참여해보니 지역사회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영상이나 교과서 등으로 보는 것보다 직접 체험하는 것이 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상북도청소년의회 교실은 2014년부터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1일 도의원이 되어 지방의회 의사일정을 스스로 운영하여 의정활동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며,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윤근수/기자

영덕군의의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펼쳐

- 지역개발사업장현장점검특별위원회 현장중심 의정활동 - 「점검 결과 수범 사례 5건, 개선 1건, 보완 12건, 건의 28건 발굴」

영덕군의의회는 지난 26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상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지역개발사업장현장점검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집행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규발주사업장, 민간자본보조사업장, 사회복지시설 법인, 대형사업장 등 지역 내 162개소의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 현장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별위원회는 이번 현장 점검결과, 수범 사례 5건, 개선 1건, 보완 12건, 건의 28건을 발굴했으며 우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원 표창을 실시하였고, 지적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보완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했다. 김성호 특별위원장은 "이번 현장 점검 활동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이 나 시정 개선이 필요한 사업은 발

견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군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으며, 공사와 관련된 주민의 요구사항이나 불편을 적극 수렴하여 군정과 의정에 반영할 수 있었다."고 하며 "앞으로

도 현장 중심의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대구시의의회, 농번기에 바쁜 농촌일손돕기에 나서

- 지난 25일(목), 달성군 유가읍에서 마늘, 양파 수확 작업 도와 - 이만규 의장, "대구시 농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발굴 노력" 밝혀

대구시의의회는 지난 25일(목), 오전 8시부터 달성군 유가읍 한정리 소재 마늘, 양파 수확 현장에서 일손이 부족한 농촌 돕기에 나섰다. 이날 농촌일손돕기에는 이만규 의장, 이영애 부의장 등 대구시의원들과 대구시의회 사무처 직원 40여 명이 달성군 유가읍 한정리 소재 농장을 방문하여 농민들과 함께 마늘, 양파 수확에 힘을 보태며 구슬땀을 흘렸다.



한정 수확 시기인 마늘을 주민들과 함께 수확하며 농업 근로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농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다. 이만규 의장은 "청년층 인구유출과 노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보람된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 군위군이 편입되면 대구시

의 농업 인구가 7천 명 이상 늘어나고, 농지 면적도 2배로 크게 늘어나게 되는데, 오늘 체험과 농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농촌일손 부족 문제, 농산물 판로 개척 등 대구시 농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수원특례시의의회, "어르신 복지 위해 복지정책 적극 지원할 것"

수원특례시의의회는 5월 24일 디에스컨벤션에서 열린 '제13회 수원시효사랑 칠순 잔치'에 참석하여 어르신들에게 축하와 존경을 표하며, 어르신 복지를 위해 복지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가 후원하고 (사)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회장 김춘봉)가 주최하는 효사랑 칠순 잔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70세 이상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합동 고현연이다. 이날 행사에는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과 복지안전위원회 국미선, 김동은, 사정희, 윤경선 의원,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오세철 의원이 참석하여 현주를 올리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김기정 의장은 "어르신을 공경하고 모시는 일은 인간된 자의 기본 덕목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하며 "어르신 복지를 위해 더 많은 복지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충남도의의회 '디지털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 연구용역 돌입

'충남 디지털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 및 2차 회의

충남도의의회가 디지털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충남도의의회 '충남 디지털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 연구모임'(대표 박미옥)은 24일 공주대학교 산학연구소 513호실에서 '디지털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및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연구모임은 대표를 맡고 있는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을 비롯해 충남도의의회 이재운 의원(계룡·국민의힘), 대학교수, 교사, 영농조합 대표 등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연구모임 회의는 문화유산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교육방법으로 디지털 문화유산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용역은 7개월 동안 디지털 문화유산 교

육 현황조사와 분석을 진행하고, 올해 11월 말 최종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학과 조영훈 교수는 "현재 디지털 문화유산 교육은 문화유산 교육의 본질인 역사적 사건의 증진이나 문화교육이 이루어지기보다 디지털 플랫폼에 문화유산을 단순히 옮겨 놓기만 한 전달형 교육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교사, 대학생, 초·중·고등학생에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교육과 학습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디지털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디지털 문화유산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디지털 문화유산 교육

을 진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내외 다양한 디지털 문화유산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청송군의의회, 제121차 경북 북부지역 시군의장협의회 개최

권태준 의장, "경북북부를 함께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혀

청송군의의회는 지난 25일, 청송종합문화복지타운 소공연장에서 경북 북부지역 시·군의회의장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1차 경북북부지역시·군의회의장협의회를 개최했다.



청송군에서 개최된 이번 월례회는 경북북부지역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청송군의의회가 주관해 경북북부지역시·군의회의장, 청송군의의회 의원, 윤경희 청송군수가 참석했다.

권태준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청송군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경북북부 발전을 위해 지역 현안 및 정책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균형

있는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등 경북북부를 함께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부회장:박유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호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치부:내선 (112)	문화부:내선 (116)
광고국:1899.9659	사회부:내선 (113)	부동산부:내선 (117)
	경제부:내선 (114)	오피니언부:내선 (118)
	스포츠부:내선 (115)	지방부:내선 (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송파구, 재난상황 영상중계 시스템 구축해 '재난 골든타임 확보'

송파구가 재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오는 8월부터 '실시간 재난상황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 완료해 가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실시간 재난상황 정보공유 시스템'은 송파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송파구 전역의 재난 상황을 관제하고,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는 즉시 현장 CCTV 영상과 발생위치 정보를 송파구 재난상황실과 재난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송출, 중계하는 시스템이다.

구는 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을 목표로 5월부터 사업비 약 9천만 원을 투입해 재난 상황 영상을 즉시 공유하는 '실시간 영상중계 시스템' 개발 작업에 착수했다. 기존에는 재난 발생 시 관련 정보를 관제센터 내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을 개선한 것이다.

이번 시스템이 구축 완료되는 8월부터는 재난이 발생하면, 송파CCTV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관제하고 있는 CCTV영상을 웹(Web)기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통해 재난 및 종합상황실 등에 실시간 공유하게 된다.

동시에, 재난관리자의 모바일 단말기 앱(APP)에 재난 발생위치와 실시간 영상을 표출되도록 연계해 제공한다. 또, 재난 발생 관련 부서장 등 재난관리자에게 모바일 푸시 알림 등으로 상황을 전파해 즉각적인 초동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구는 재난상황 발생 시 현장 상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발 빠른 대응으로 재난상황의 안전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구는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인파 응-복합 분석플랫폼' 구축, 방범용 CCTV 지속적 확충

등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송파구 CCTV통합관제센터 전담공무원과 경찰관이 극단 선택을 예고한 학교폭력 피해자를 안전하게 가족 품으로 돌려보냈으며, 5월에는 분실카드를 사용하는 용의자를 조기 검거하는 성과를 이룬바 있다. 구는 현재 총 1,313개소에 총 3,250대의 방범용 CCTV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4년간 1,200대를 신규 설치할 예정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정확한 현장정보 공유와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연중 24시간 실시간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할 것'이라며, '주민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최우선에 두고, 점점 복잡, 다양해지는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송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황규석/기자

금천구, 노후·고위험시설안전점검 실시



금천구는 '2023년 대한민국 안전대 전환 집중안전점검' 기간을 맞아 노후화되거나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고위험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5월 25일에는 유성훈 금천구청장이 민·관 합동점검반과 함께 금천구 내 교량을 다니며 위험 요소가 없는지 전반적인 안전 관리상태를 점검했다.

금천구는 6월 16일까지 건축·교

통·하천시설과 공사장, 산사태 위험지역 등 91곳의 안전점검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에서 바로잡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긴급 보수 보강, 사용 제한 등의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필요시에는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신속하게 개선하고, 보수·보강 등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력

을 관리할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우리 생활 주변의 안전 위해 요인을 조기에 발굴해 해소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주민 여러분께서도 자율점검을 생활화하고 위험 요소 발견 시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박황신/기자

성북구 드림스타트, 미혼양육모 가정에 돌잔치 지원

성북구, 드림스타트 미혼양육모 가정 위한돌상차림 지원(Happy Baby Program)사업 운영

"소유이(가명)의 첫 돌을 축하합니다!"

성북구 드림스타트가 지난 23일 사례관리 아동 소유이(가명)를 위한 돌잔치를 열었다.

드림스타트에서는 가정 환경상 돌잔치를 열지 못하는 미혼양육모 가정을 위해 맞춤형 아동통합서비스 중 하나로 생일상 지원(해피베이비 프로그램)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관계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소유이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움직였다.

행사에 필요한 공간은 성북구 가족센터 공동육아 행복 나눔터를 활용하고, '당아상(당신만큼 아름다운 상)'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상차림 세트를 대여해 돌잔치 물품 등 생일상을 준비했다. 드림스타트는 또

한 돌 떡과 축하 카드가 담긴 꽃다발, 사진 촬영 및 액자를 준비해 의미 있는 날을 오래 기념할 수 있도록 했다. 스냅 사진은 평소 사진 촬영을 즐기는 드림스타트 담당 주무관이 맡았다.

"사랑하는 소유이(가명)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소유이(가명)가 연필과 마이크를 잡는 순간 카메라 플래시와 함께 환한 웃음소리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소유이(가명) 가정은 성북구 장위1동 동주민센터에서 복지플래너를 통해 발굴돼 현재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됐다. 영유아발달검사, 영양플러스, 주거청소, 양육지도 등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소유이(가명) 엄마는 "오늘은 아

이와 저에게 잊지 못할 특별한 날이 됐다"며 육아로 지친 상황에서 성북구 드림스타트에서 선물 같은 시간을 마련해주신 덕분에 오랜만에 웃어본 것 같다.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신 만큼 잘 키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드림스타트 생일상 지원 프로그램(해피베이비 사업)이 현실에 직면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의 첫 번째 생일을 챙겨주지 못한 아쉬움을 해소하고 평생 기억에 남는 추억을 선사할 수 있길 바라며, 추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통해 센터에서 관리하는 가구가 건강한 한 가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강성원/기자

은평구, 종교단체 대상 청년정책 설명회 개최

5월 23일 기독교 청년담당 성직자 대상 은평구 청년정책 설명회 개최

은평구는 지난 23일 서울청년센터 은평오랑에서 은평교구협의회 소속 청년담당 성직자를 대상으로 '종교단체 청년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은평의 다양한 청년정책과 청년 지원사업을 종교단체 내 청년들에게 전달해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책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된 설명회다.

기독교를 시작으로 내달 불교와 천주교를 대상으로도 청년정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구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청년창업접점 등 취업 분야 8개 사업과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 청년마음건강 바꾸기 지원사업 등 주거·복지 분야 10개 사업 및 청년활동지원 프로젝트, 청년주간 등 참여권리 분야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은평구 청년들의 실태와 욕구를 파악해 '은평구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는 은평구 청년정책 및 청년지원사업 소개, 서울청년센터 은평오랑 소개,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은평오랑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설명회에 참여한 성직자들은 "종교단체 대상으로 처음 개최된 '청년

정책 설명회'를 통해 우리구의 다양한 청년정책을 알 수 있었고, 정책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다양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종교단체에서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는 설명회를 계기로 종교단체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고 돌봄이 필요한 청년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최만식/기자

영등포구, 금융기관과 손잡고 전세사기 예방 나서



확정일자 부여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 구민 재산권 보호 강화

영등포구가 5월 23일, 영등포구청에서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내 11개 금융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을 비롯해 김형준 NH농협은행 당산지점장, 이경아 신한은행 당산동지점장, 위택 우리은행 영등포구청지점장, 강순철 하나은행 당산금융센터지점 부장, 문지연 수협은

행 영등포금융센터 부지점장, 허준영 대림1동새마을금고 이사장, 이종문 문래동새마을금고 전무, 차중환 신길1동새마을금고 이사장, 박중현 영등포당산새마을금고 이사장, 한윤기 당산신협 이사장, 박일우 신길신협 이사장이 참석했다.

구와 금융기관은 간담회를 통해 전세사기의 유형·위험성, 피해 예방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구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주택 담보대출 시행 시 확정일자 부여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안내, 전세사기 예방법 홍보 등 전세사기 피해 예방 환경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 연립·다세대 전세사기의 최근 3개월 자료에 따르면, 영등포

구 전세사건은 86.3%로 서울시 평균 전세사건인 76.8% 보다 9.5% 높아 전세사기 위험군으로 분류된다.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전세사기는 주로 서민·청년층을 극한으로 내모는 중대한 범죄만큼, 구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금융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전월세 피해 예방을 위해 각종 전월세정책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영등포구 전월세 정보마당'을 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전세사기 의심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강력 지도·단속하고, 불법 중개행위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박황신/기자

불법촬영 OUT! 성북구 시민감시단·중암경찰서 합동점검

자매결연도시 농가, 지역농협, 말죽거리상점가와함께 소비자 및 생산자의 상생의 장 마련

서울 서초구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음악과 즐길거리가 있는 '서초직거래큰장터'를 구청 광장과 인근 음악산책길에서 연다.

구는 이날 주민의 성원에 보답하고 장터에 재미를 더하고자 행운의 룰렛돌리기 이벤트 '감사한네이데이(DAY)' 행사를 12시 30분부터 개최한다.

장터에서는 3만원 이상 물건을 사고 받은 영수증을 제시하면 룰렛을 돌려 당첨 고객에게 사은품(농수산물 및 특산물)을 제공한다. 사은품은 각 참여 농가에서 직거래 판로를 열어준 서초구에 고마운 마음을 담아 협찬해 주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5시까지다.

주요 판매품목은 ▲서천군 모시 앞질갈 ▲예산군 한과, 사과 ▲청양군 한우·한돈 ▲당진 부각 ▲포항시 생선 ▲나주시 배, 식혜 ▲산청군 꿀 등 신선한 현지 특산물, ▲횡성군 표고버섯 ▲괴산군 김치류 ▲남서울농협 강정, 곡류 ▲영등농협 견과류, 과일 ▲말죽거리 상점가 청과, 떡 등이다.

또 구는 신나는 노래와 음악을 통한 신명나는 장터를 만들기 위해 25일에 '꽃자리콘서트'도 구청광장에서 함께 개최했다. 공연은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국악기와 서양악기를 결합한 퓨전 국악그룹인 K.Fly가 출연했다.

2020년 코로나로 중지된 이후 지



난해 8월 재개장한 직거래큰장터는 자매결연도시 뿐 아니라 지역농협인인 남서울농협과 영등농협을 비롯해 제1호 골목형 상점가 '말죽거리 상점가'도 참여하여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넓혔다.

특히 기존 매월 4번째 목, 금 1회 개최되던 것을 지난해부터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매월 2번째, 4번째 목, 금 2회 개최하고 있다. 이곳에는 구와 자매결연한 20여개 단체, 50여 곳의 농가가 참여해 각종 싱싱한 야채, 생선, 축산물, 버섯 등 농수축산물과 꿀, 젓갈, 전통 된장

등 우수한 지역 특산물 등 200여개 품목을 판매하여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성수 구청장은 "이번 장터를 통해 주민들이 품질 좋은 우리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살 수 있고, 농가는 유통마진 없이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상생의 장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많은 주민들이 장터를 이용함으로써 침체된 농가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농 상생의 장을 활성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경기도 김동연지사, 체류형 관광과 문화접목으로 가평 관광산업 발전 이끈다

경기도, 26일 가평군

자라섬에서 제7회

맞손토크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가평군 자라섬에서 7번째 맞손토크를 열어 관광 산업 활성화와 지역 현안에 대한 가평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가평이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넓은 시군이지만 인구는 끝에서 세 번째로, 산업의 65% 정도가 관광 산업”이라며 “경기도에, 특히 가평에 체류 관광지를 만들어야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가평군도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 가평군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것 중에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바로 해결해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맞손토크는 경기도 대표 축제인 자라섬 봄꽃 축제(5.20~6.18.) 기간을 맞아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의 일자리 개선과 지역 성장 전

략으로 관광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관광 산업 관계자와 가평군민을 비롯해 서태원 가평군수, 임광현 도의원,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 이정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맞손토크 1부에서는 관광 산업 종사자들의 현장 토크가 이뤄졌다. 아침고요수목원 김성규 이사를 비롯해 캠핑장, 펜션 운영자 등 종사자들은 ‘숙박 이전에 방문할 곳들, 연계 관광이 가능한 곳이 있어야 한다’, ‘청년층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콘텐츠가 있으면 한다’, ‘미등록 무허가 캠핑장 단속도 중요하다’, ‘양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가평군을 캠핑특구로 지정해달라’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정훈 연구위원은 “가평의 브랜드는 청정과 힐링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탄소중립 청정관광특구라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평에서 하는 관광은 전부 탄소제로, 넷제로를 실현하는 캠페인을 하며 정책적 지원을 끌어낸다면 브랜드

도 하고 규제 완화의 단초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한다”라며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연계해 문화산업 플랫폼을 만들어 젊은 층과 기업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김 지사는 “가평군 관광을 ‘탄소중립 관광’으로 특별화하는 방안 등 전국적으로 가장 앞서갈 수 있는 길을 검토해보고 가평군과 문화산업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겠다”라며 “또 미등록 캠핑장에 대해서는 이달 말부터 특별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단속과 조사를 바로 하도록 하고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약속된 것이 제가 빠른 시간 내에 가평 펜션에서 하루 숙박을 해보며 직접 몸으로 체험해보겠다. 관광객들이 경기도에서 하루 더 숙박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도록 해보겠다”라고 덧붙였다.

2부에서는 가평군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주민들은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색현터널 보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교직원



소속 건립, 연인산도립공원 오수처리장과 편의시설 설치, 청년지원센터 건립과 일상적으로 자주 쓰이는

김 지사는 건의 사항마다 답변을 하며 경기도의 지원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세금을 걸어서 도민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하고 조금도 허투루 쓰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제 임무”라며 “특히 관광산업은 경기관광공사 사장이나 전문가들, 가평군수님과 의논해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7번째를 맞이한 맞손토크는 낙후 구도심 정비(안양, 안산), 경기북부 발전(연천), 기업경제 촉진(화성), 기후위기 대응(광명) 등 지역별 현안을 반영한 지역맞춤형 주제로 진행되어 도민과의 다양하고 내실 있는 소통창구로 자리매김 중이다.

최만식/기자

이천시공공형어린이집 에코플로킹 환경 챌린지 발대식 개최

이천시 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는 31일 바다의날을 기념하여 환경 캠페인 챌린지 발대식을 5월 25일 서희문화테마파크에서 개최했다.

앞으로의 기후위기와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어린이집과 영유아, 학부모가 함께 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한발 앞서 나갔다.

이 날 행사에 이천시공공형어린이집 20개소 원아들과 보육교직원, 이천시지속발전협의회(회장 정철화) 등 총 350여 명이 참석했다. 발대식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환경을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주변 쓰레기 줍기, 분리수거, 재활용품 재사용,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친환경 제품 사용 등을 환경 챌린지 활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노력할 것을 서약했다.

이천시 공공형어린이집은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MOU체결을 시작으로 앞으로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환경챌린지 활동과 환경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연간계획을 살펴 보면, 우리동네 한바퀴 플로킹, 쓰레기 담(기) 쓰담 행사, 가정과 함께하는 환경캠페인 챌린지, 환경챌린지 사진전 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다.

이러한 활동으로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환경교육의 첫걸음이며, 어른들은 깨끗한 환경을 보존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

이천시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장(안정기)은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실천하여 깨끗한 지구가 되도록 큰 역할을 담당하겠다”며, 함께 환경을 지키는 가치를 전파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이천시여성보육과과장(권옥선)은 “우리 이천시의 자라나는 아이들이 뜻깊은 행사에 동참할 수 있어서 기쁘고, 앞으로도 환경을 생각하고 지속가능한 지구생태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성용/기자

고양시 2023년 4월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공개

국민신문고 만족도 4.4% 향상

고양특례시의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시민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4월 고양시에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은 총 16,061건으로, 전월(15,543건) 대비 518건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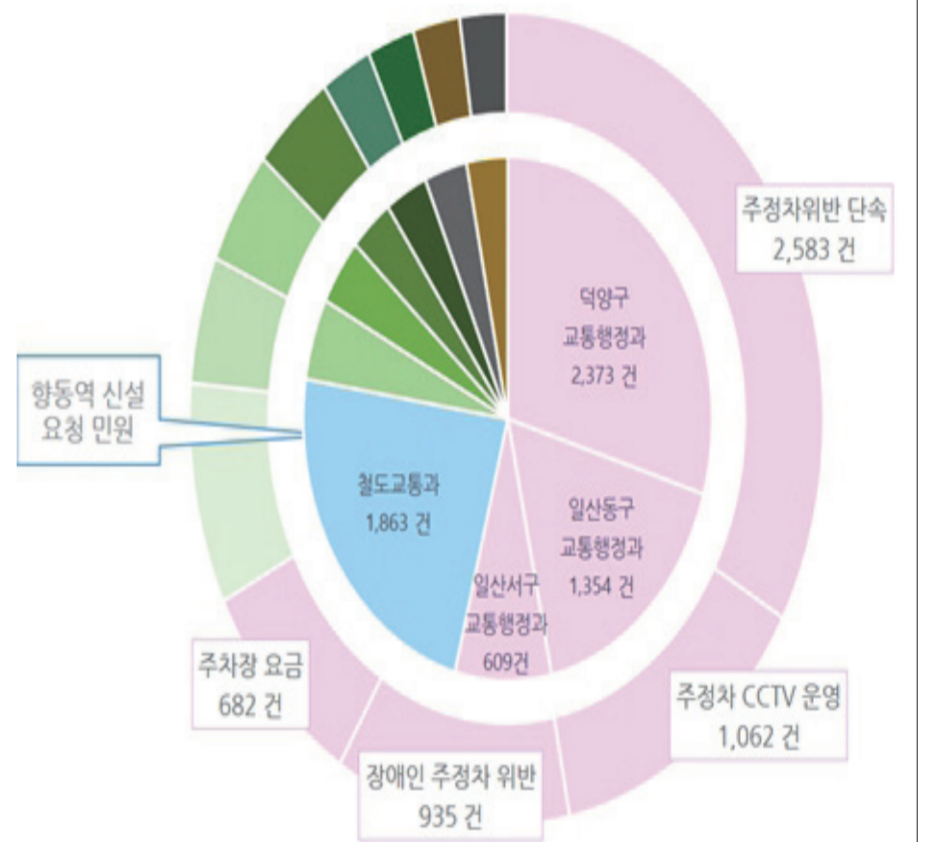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양시에 접수된 민원은 주정차 위반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고, 향동역 신설 요청 민원 역시 빈번하게 들어왔다. 지역별로는 덕양구 향동지구와 덕은지구에 관한 민원이 많았고, 주차문제, 교통시설, 주거환경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의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민원처리결과의 시민 만족도는 51.9%로, 전월 대비 4.4% 향상됐다. 올해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시민 만족도는 1월 51.5%, 2월 42.4%, 3월 47.5%로 향상 추세에 있으며, 4월에는 전월보다 많은 양의 민원을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가장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한편, 유기한 민원은 51,969건

접수되어 전월(62,004건) 대비 10,035건(16%) 감소했다. 3월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의 신학기 시작으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변경 신청 민원과 일상적으로 자주 쓰이는 증명 발급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후 4월 접수 건수가 감소했다.

접수일과 처리일이 4월에 속하는 민원 중, 법정처리기간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의 처리기간 준수율은 99.3%, 법정처리기간 6일 이상 유기한 민원의 처리기간 단축률은 85.6%를 기록했다. 이는 거의 대부분의 민원이 법정처리기간 내에 처리되고, 법적으로 10일 걸리는 민원을 단 1.5일 만에 처리했다는 의미이다.

2023년 1월 1일 이후 4월 30일까지 접수된 모든 민원을 분석하면, 법정처리기간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의 처리기간 준수율은 99.4%, 법정처리기간 6일 이상 유기한 민원의 처리기간 단축률은 60.6%이다. 이는 30일 이상 소요된 민원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로서, 2월에 접수되고 4월에 처리된 민원 등이



모두 포함된다. 등 시민이 만족하는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동역 신설 요청 민원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동역 신설 요청 민원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동역 신설 요청 민원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남시 신장1동 지역사회협의회 “어르신孝心지” 행사 성황

지역 어르신 400분과 식사와 여흥 제공 “무병장수하세요!”

하남시 신장1동 지역사회보장협의회(민간위원장 유다경)는 5월 25일 지역 어르신 400여명을 모시고 행정복지센터 마당에서 ‘어르신 잔치’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현재 하남시장, 강성삼 시의회 의장 등이 주요 내빈으로 참석하여 축하했으며 신장1동 지역사회보장협의회 19명의 위원과 관내 유관 단체가 함께 봉사했다.

신장1동 지역사회보장협의회에서는 참여 어르신을 위해 소고기 무국, 야채 부추전, 김치 갈매기 등 반찬을 직접 만들어 사백 명에게 대접했다.

특히 색소폰 공연으로 시작 된 ‘어르신 잔치’는 두 시간이 진행됐으며 해령, 나영진, 키다리 박 트로트 가수의 공연과 신장1동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정현정 위원의 공연했다. 이날 진행된 모든 공연은 출연료가 없는 재능기부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힘쓰고 있는 신장1동 지역사회보장협

의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시에서는 어르신들이 보다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중이며 앞으로도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장1동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유다경 위원장은 “어르신들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자 저희 위원들이 정성껏 마련한 자리이니 미흡하지만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강호/기자



인천시 2023년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성과공유 및 재생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23개 구역 사업 관계자 130여 명 참석

연번	구분	구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1	2018년 선정	동구	송희마을	송현동 291-6 일대	11,693	
2			만석동 주유미 마을	만석동 48-4 일원	68,219	
3			미추홀구 누(리)과(나)누(는)동네	도화동 886 일원	110,805	
4			부평구 하하마을	부평동 767 일원	45,363	
5	2019년 선정	중구	전동 윗터골	전동 32-1 일원	29,933	
6			금정동 석봉고개	금정동 22 일원	35,976	
7			미추홀구 배말마을	석정로 301번길 일원	46,798	
8			서구 가좌3구역	가좌동 224-2 일원	228,810	
9	2020년 선정	강화군	온수마을	갈산면 온수리 527-3 일원	97,439	
10			송미리	송현동 송미로 23번길 일원	2,785	
11			용원5	용원동 수동로 130번길 일원	46,614	
12			미추홀구 용원사거리 남동측	주안동 현내로 490번길 일원	49,182	
13	2021년 선정	남동구	간석3동 돌산마루	간석동 37 번지 일원	50,312	
14			작전	작전동 646 번지 일원	43,930	
15			신원 원마을	신원동 147-2 번지 일원	75,026	
16			월남촌 사랑마을	도서원길 73 일원	41,058	
17	2022년 선정	부평구	남촌도림동 남측	남촌로 93번길 일원	43,032	
18			갈산명림마을	새길로 13 일원	60,000	
19			웃웃마을	율우로 50번길 81 일원	82,820	사업취소
20			작전대로 이류길	작전시장로 25 일원	52,000	
21	2022년 선정	미추홀구	문학동 메아리마을	문학동 376-1번지 일원	49,280	
22			연수구 연수동 비류마을	비류대로331번길 일원	21,000	
23			남동구 인수마을	인수북로14번길 일원	58,199	
24			유계내마을	구월로309번길 일원	63,979	사업취소
25	2022년 선정	서구	가재울마을	열우로282번길 일원	73,640	

인천광역시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3년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재생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마련한 보고회에 23개 구역의 주민협의회와 마을활동가 총괄코디네이터와 시·군·구 담당자 및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자문위원 등 시민 130여명이 참석했다.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은 현재 지개량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현재 9개 군·구 23개 구역에서 추진중이다. 23개 구역 중 10개 사업구역에서 주민공동체 활동·주민활동가 및 총괄코디네이터 역할·공동이용시설 조성 및 운영 등의 주거지 재생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로 성과를 공유했으며, 그 중 성과가 우수한 5개 구역을 선정하여 시상식도 진행했다.

특히, 이날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자문위원회 정혜영 위원은 ‘공동이용시설 운영방식’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재생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의 지속운영방안에 대해 민관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도수 시 도시균형국장은 “바람

직한 거버넌스 실현을 위해 재생과 관련한 모든 공적·사적 조직과 대등한 교섭이 가능한 조직으로 성장해야 하며, 성공적 거버넌스와 주민참여를 위해 민간에 대한 공공의 인식 개선 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적·사적 참여주체간 협업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계획단계부터 민간을 지원하기 때문에 어느 이해관계자보다 주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총괄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중요함”을 당부했다.

보고회 후 인천시는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자문위원회 ‘총괄코디네이터 간담회’를 열어 공동체활성화와 공동이용시설 조성계획, 운영방안 등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비류마을의 전찬기 총괄코디네이터는 “계획의 전 과정에 걸쳐 사업의 적정성, 정책방향의 부합여부 등 전문가 조력을 통한 계획의 내실화를 위해 전문성을 확보고, 공공과 민간을 연결해주는 역할에 집중해 주민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용인도시공사, 시민과 함께하는 단체 헌혈 캠페인 실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 이행 및 혈액 수급에 기여해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는 2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르피아 스포츠센터 앞 광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단체 헌혈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과 함께한 이번 캠페인은 공사 임직원 및 시 산하기관 임직원, 공무원,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자발적으로 헌혈버스에 올라 나눔을 실천했다.

캠페인을 진행한 공사 관계자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아르피아스포츠센터 광장에서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피켓 등을 활용하여 헌혈을 적극 홍보했고 대한적십자사도 등

록 헌혈 회원에게 SMS로 소식을 전하는 등 혈액 수급에 기여하기 위한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홍보가 이어졌다.

최찬용 사장은 "혈액 수급에 동참해주시는 임직원 여러분, 유관기관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앞으로도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도시공사는 혈액 부족 사태에 보탬이 되고자 금년도에 격월로 헌혈 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만식/기자

화성시문화재단 임직원, 공동생활가정과 지역복지관 대상 '수제쿠키 나눔 활동' 펼쳐

(재)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신아)은 지난 5월 23일 화성시생활문화센터 오픈키친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지역사회 공헌 일환으로 '수제쿠키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신아 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를 포함해 임직원 30여 명이 참여했다. 재단은 임직원

이들은 수제쿠키를 (사)화성시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지역 내 공동생활가정과 복지관에 전달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봉사에 참여한 김신아 대표이사는 "앞으로 화성시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화성시, 남원시와 자매결연 맺어

26일, 남원시에서 자매결연 협약식 개최



화성시가 전라북도 남원시와 상생 발전을 위한 자매결연을 맺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과 함께 26일 남원시를 방문해 최경식 남원시장과 정영기 남원시의회 의장을 만나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도시는 인적·물적 자원 교류와 협력사업을 통한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원시와 화성시가 한 가족이 된 만큼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계가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충함과 몽룡의 사랑처럼 변하지 않는 관계가 지속되길 바란다"며, "젊고 역동적인 화성시와 문화자원이 풍부한 남원시가 함께한다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남원시 대표 축제인 제93회 춘향제 개막식에 자매도시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양시현/기자

광명문화재단, '예술공간 광명시작' 3일 개관...기념 전시 개최

(재)광명문화재단은(대표이사 어연선) 광명시 시민 문화공간 '예술공간 광명시작(부제: 모든 사람을 위한, 작지만 시작하기에는 충분한)'을 일

직동에 위치한 이케아 광명점 P1층에 오는 3일 정식으로 문을 열고 첫 번째 전시회를 개최한다.

광명문화재단, 광명시, 이케아 광명점 업무협약을 통해 조성한 '예술공간 광명시작'은 이케아 광명점 P1층 상업시설 중 연면적 53㎡ 규모의 1개소를 소규모 전시, 문화예술 프로그램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단장해 만든 공간이다.

기획전시, 주민 참여 문화 프로그램, 예비예술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일직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예술인과 시민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겠다는 취지다.

예술공간 광명시작 기획전시는 별도의 예약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예술에 대한 심리적 진입장벽을 낮추고 친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광명문화도시 시민기획자가 함께하는 도슨트를 운영한다.

개관 기념 기획전시 [광명·도·시작·전]은 '도시'를 주제로 참여작가 △봄로야 △양영신 △장은경 세 사람의 도시에 대한 3가지 시선을 선보인다. 작품을 통해 관람객은 저마다 광명시와의 기억을 떠올려 본다.

광명문화재단 어연선 대표이사는 "광명시민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예술이 넘치는 광명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윤용민/기자

최대호 안양시장, '제5회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대상 수상

지자체간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감소·함백산추모공원 등 사례 발표



최대호 안양시장이 '2023년 제5회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공모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25일 안양시에 따르면, 최 시장은 전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자치단체장 부문 대상에 선정됐다.

자치단체장 부문 대상은 주민생활 편의 확대, 행정효율성 제고 등 8개 분야의 수상자 중 가장 우수한 자치단체장 1명에게 수여하는 영예로운 상이다.

최 시장은 이날 '로컬거버넌스의 힘으로 주민 생활을 혁신하다'를 주제로 안양시의 다양한 거버넌스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시는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5개 지자체 배출량 갈등 해소 ▲6개 지자체의 파트너십으로 이뤄낸 함백산 추모공원 ▲교육자치 실현 위한 미래교육 거버넌스 구축

2022년 출생아수 전년 대비 166명 증가 및 합계 출산율 증가(잠정)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 등 우수한 거버넌스 활동을 펼쳐왔다.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공모대회는 사단법인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이 후원하는 행사다.

지난 3월 응모 접수를 시작으로 서류심사, 면접,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쳐 수상자가 선정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의미있는 상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참여와 협치의 리더십으로 지방정치를 혁신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우용/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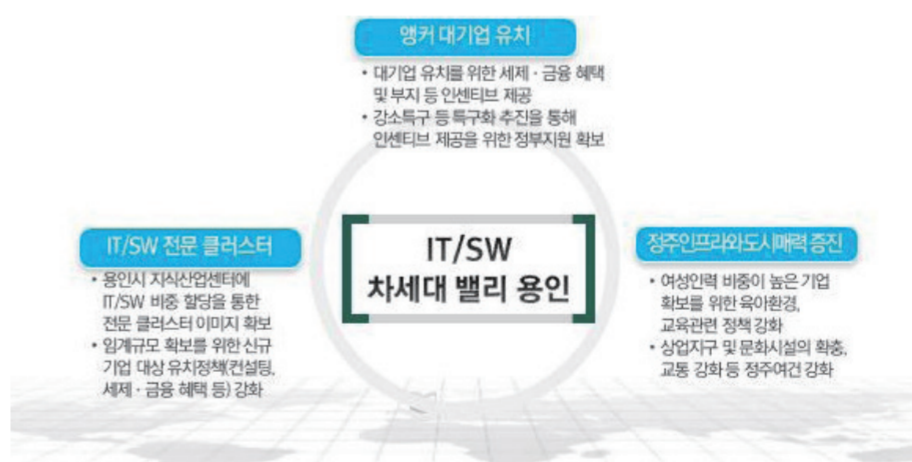
"용인 플랫폼시티 IT·SW 차세대 밸리 허브로 성장 가능"

용인시정연구원은 25일 이슈리포트 'YRI Insight 제70호'를 발간하여 IT/SW 산업의 이동 특성 및 용인의 IT/SW 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IT/SW 차세대 밸리 용인 구축을 위해 특구 지정, 전문 클러스터화, 인력 유치를 위한 정주 환경 개선의 3대 전략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IT/SW 산업은 부가가치율이 72%로 타 산업(제조업 29.3%, 서비스업 56.4%)에 비해 높으며, 매출액 성장 속도 또한 연평균 7.5%로 주요 선진국의 IT/SW 산업보다 더 높은 고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DP 대비 IT/SW 산업 매출액 규모가 작아 미래 성장성도 높은 산업이며, 따라서 용인시가 반도체 이후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IT/SW 산업의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용인특레시의 IT/SW 산업 성장을 위해 이번 연구에서는 '11~'19 9년간의 IT/SW 산업 이동 특성에 대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IT/SW 산업은 타 산업대비 지역 이동의 비율이 4~10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판교 테크노밸리 입주기업의 경우 절반 이상이 타 지역에서 이동해 온 기업으로, 이들은 주로 관련 기업의 밀집(클러스터), 동종산업의 선도기업 또는 대기업의 존재 때문에 판교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의 IT/SW 기업도 타 지역에서 상당수가 유입됐으며, 대부분 성남시와 수원시에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남시에서의 유입은 2015~2016년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판교테크노



밸리 입주가 완료된 이후 일부 기업이 비용 등을 이유로 이전한 것으로 추정된다.

IT-SW 기업은 산업단지나 IC 접근성 등의 인프라에 매이지 않고, 같은 기업끼리 뭉치는 클러스터를 지향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에도 업력이 짧고, 여성 인력의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이동을 자주 하고, 이동 대상 지역의 임대료 등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용인특레시가 IT-SW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특성상 기업유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인프라를 중심으로 하는 용인의 기존 산업정책이 아닌, IT-SW 산업의 특성에 맞는 전략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IT-SW 차세대 밸리로 거듭나기 위한 용인특레시의 3대 전략으로는 ① 지역 내 앵커 대기업의 유치, ② IT-SW 전문 클러스터로서의 이미지 구축 및 임계규모 확보 ③ 인력 유치를 위한 도시매력 증진정책 추진을

보고서는 제안했다. 대기업의 유치를 위한 전략으로는 ▲ 특구 유치를 통한 세금 및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했고, IT-SW 이미지 구축과 임계규모 확보를 위해서는 ▲ 클러스터 조성 시 IT/SW 기업 위주의 입주기업 선정 ▲ 업력이 짧은 기업을 위한 컨설팅 및 금융/세제 지원 제공을 제안했다.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 여성 인력 비중이 높은 기업유치를 위한 육아 및 자녀교육환경 개선 ▲ 지역 내 상업지구와 문화시설 확충 등 정주 인프라 및 도시매력 증진 전략을 제시했다.

김의성 경제산업연구부장은 "용인특레시가 IT-SW 차세대 밸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후장대형 산업에 적합한 기존 지원정책이 아닌, IT-SW 산업에 적합한 용인시만의 창조적이고 전략적인 지원정책이 필수적이다"라며 "용인 플랫폼시티는 IT-SW 차세대 밸리의 허브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만식/기자



‘럭키세븐 경북여행 100선&경북나드리 출석체크’이벤트 실시

경북여행지 방문하고! 인증샷 올리고! 출석체크 하면! 푸짐한 상품이 내 손에

경북도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오는 6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경북나드리 홈페이지에서 도내 관광 명소 및 축제 100선을 지정해 ‘럭키세븐 경북여행 100선&경북나드리 출석체크’이벤트를 실시한다.

경북도는 문체부에서 지정한 6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돌려 전 국민 여행분위기를 조성하고, 2023~2024 한국방문의 해와 연계해 경북을 방문하거나 경북에 관심 있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이벤트를 준비했다.

럭키세븐 경북여행 100선 이벤트는 경북 인증샷 명소를 필두로 방문객들이 자주 찾는 주요 관광지 100선을 선정해 해당 지역을 방문하고, 인증샷 촬영 후 경북나드리 이벤트 페이지에 인증샷을 올리거나 쿼츠를 풀면 즉석 룰렛 추첨으로 1천원에서 5천원의 상품권을 제공한다.

매일 이벤트에 참여하는 충성 고객들을 위해서는 특별한 연말 결산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럭키세븐 이벤트팀에 럭키세븐 여행지 77개소 이하 방문자 중 77명을 추첨해 사이스 한우세트, 77~99개소 이하 방문자 중 7명을 추첨해 풀빌라 숙박권, 100개소의 장소 미션을 모두 방문했다면 1명을 추첨해 호텔 숙박권을 증정한다. 또 매일

관광지에 갈 수 없다면 지금 당장 경북나드리 홈페이지에 접속해 출석체크 인증을 하면 출석횟수에 따라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증정한다.

매월 15회 이상 출석체크 한 경우 커피 상품권을, 25회 출석체크 한 경우 치킨 상품권, 한 달 모두 개근한 경우 상품권 5만원을 제공한다.

이벤트 결과는 매일 말일 경북나드리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발표되며, 연말결산 이벤트 결과는 12월 말 경북나드리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북나드리 홈페이지와 경북나드리 SNS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리얼코리아 경북, 글로벌 K-관광을 선도하는 경상북도는 축제월드캠핑 콘텐츠의 선도주자로 콘텐츠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에 힘쓰는 결과, 4월 누적 경북 방문 관광객이 1천2백만명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



윤근수 / 기자

2023 경상북도 사회복지공무원워크숍 개최

- 지역사회복지발전 유공 공무원 24명 도지사 표창
- 사회복지공무원 역량 강화 및 소통의 장 마련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경북도는 지난 25~26일 이틀간, 성주 가야호텔에서 23개 시군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경상북도 사회복지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개회식 ▲유공 공무원 표창 수여 ▲사회복지 선배 공무원 특강 ▲지역 네트워크 역량 강화 순으로 진행됐으며,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 및 시군 간 원활한 소통과 협업 능력 향상을

선진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경북도 23개 시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2022년 12월 기준 1천987명으로 이들은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노인·장애인·노숙인, 아동, 청소년, 여성 대상 업무와 관련 사회복지시설 1만1천여개소의 운영 지원 업무를 담당하며, 읍면동 최일선 현장에서 도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진현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 사회복지공무원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고령화, 저출생 등 급격한 사회 여건 변화 속에서 틈새복지 영역의 확대와 연속성 확보를 위해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력 확충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 / 기자



경북도, 해양수산 활성화 심포지엄 개최

환동해 블루오션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방안 모색

경북도는 지난 26일, 영덕 로하스 수산식품지원센터 대강당에서 환동해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방안을 주제로 “해양수산 활성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는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이성희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 김광영 영덕군수, 군의원, 대학교수, 지역 수산인 등이 참석했다.

최근 경북의 해양수산은 기후 변화로 동해안에 난류성 해양생물의 우점화와 한류성 해양생물의 감소 등 어업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어 동해안의 어업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보존하고 어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환동해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방안’이라는 주제의 이번 심포지엄은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는 해양바이오산업의 구체적인 연구 개발 활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성희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의 해양바이오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기초강연을 시작으로 전유진 제주대

교수의 “국내외 해양바이오산업 동향”, 이충일 강릉원주대 교수가 “해양바이오통한 글로벌 바이오 시장 선점”이라는 주제 발표를 했으며, 해양바이오 산업에 대한 다양한 연구 및 산업동향 발표가 이어졌다.

패널토론에서는 김대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정책사업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박요섭 해양과학기술원 책임기술원, 장미순 국립수산물학원 자원환경식품부연구관, 손영창 사단법인 한국해양생명과학회 회장, 안순철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와 함께 “환동해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바이오산업은 환경 문제 해결과 함께 새로운 바이오소재 개발과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분야다. 앞으로 경북도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도출된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방안을 정책으로 연계해 동해안 해양수산자원 관리와 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 / 기자



“대구국제사격장 등 전국 종합사격장 6개소” 전국 종합사격장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은 지난 22일(월)~23일(화), 양일간 대구국제사격장에서 전국 종합사격장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격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의체 구성과 업무협약 체결에는 대구국제사격장, 경기도사격테마파크, 전라남도국제사격장, 전라북도종합사격장, 창원국제사격장, 충주종합사격장 의 6개 전국 종합사격장이 참여했다.

지난 22(월)~23(화), 대구국제사격장에 모인 전국 6개 종합사격장은 협의체 활동의 일환으로 총기 입·출입 시스템 일원화 및 국내·외 대회 개최 시 소모품 절감 방안 등에 대한 협의와 전국 규모 사격대회 개최 매뉴얼 통일화에 대한 교육 등을 진행했다.

또한 경쟁 관계보다는 협력과 상생의 파트너라는 인식의 전환을 바탕으로 국내외 대회유치 및 운영, 업무 노하우 공유, 시설관리 및 운영 시스템 통일 등 관광 사격 및 사격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중수 대구국제사격장 소장은



“각 사격장별 장점과 특색을 강화해 관광사격 활성화와 지속적인 국내·외 사격대회 개최 등 한국 사격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문기봉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

사장은 “사격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전국의 우수한 사격장이 대구국제사격장에 모여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사격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 / 기자

대구농업기술센터, 직원 강의기법 경연대회 개최

지난 22일, 농업분야 교육훈련 전문가 양성을 위한 강의기법경연대회 실시

대구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공무원의 지도 능력 배양과 창의적 강의 기법 발굴로 농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훈련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직원 강의 기법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연대회는 지난 22일(월), 강의분야 경진을 통해 직원 강의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분야별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스스로 학습하고 연구하는 조직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실시됐으며, 5개 팀이 참여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경연에 참가한 팀은 퇴비부숙도, 농작업 안전 등 농업분야 중 강의기법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 주제를 선택, 팀별 스테디와 토론을 통해 수준 높은 내용의 강의 자료를 준비하여 15분간 발표했다.

주요 평가 요소는 주제 내용 충실성, 자료의 독창성, 전달력, 청중의



호응도이며, 현장에서 참여한 청중 모두가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시상했다.

오명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처음 시도되는 강의기법 경연대회였지만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강의 분야 능력배양에 큰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적 연구를 통해 농업 현장에 필요한 교육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강의 능력 배양이 이루어져 농업 교육훈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 / 기자

예천군, 화훼유통복합공간조성사업 준공식

예천군은 지난 26일 오전 11시, 지보면 매창리 소재 ㈜꽃담에서 화훼유통복합공간조성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학동 예천군수를 비롯한 이형식 경상북도의회 의원,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준공식을 축하했으며 행사는 김규리 대표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김학동 군수의 축사, 테이프 커팅, 체험장 내부 시찰 순으로 진행됐다.

총사업비 1억 6천만 원을 투입한 화훼유통복합공간은 화훼 작업공간과 분갈이꽃꽂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해 1차산업 위주의 단순 생산에서 벗어나 화훼 가공, 체험사업까지 확대해 고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현재 지보면 매창리에는 20여농가가 예천화훼작목반을 구성하고 5.5ha 규모의 비닐하우스에서 거베라, 리시안서스 등 10여개 품종을 재배하고 있으며 이번에 화훼유통복합공간이 조성됨에 따라 화훼산업에



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김규리 대표는 “인근 화훼농가와 협업하고 중심축 역할을 하며 원활한 유통·체험을 통해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예천군 화훼산업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학동 군수는 “화훼유통복합공간

조성으로 위축된 화훼농가의 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1차산업 위주의 생산에서 벗어나 6차산업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윤근수 / 기자

안동시 민선 8기 출범 후 굵직굵직한 지역 현안 잇따라 해결

민선 8기 1년, 100년 성장 기틀 마련 '반세기 시민 숙원 해소 기대'

민선 8기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안동시의 굵직굵직한 현안이 잇따라 해결되고 있다. 최근 안동시는 국토교통부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에 '안동 바이오 생명 국가산업단지'가 선정되며 글로벌 백신·바이오 허브 도시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1991년부터 30여 년간 추진한 국가산단 유치의 실마리를 풀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희망을 품어볼 수 있게 됐다.

또한,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용도 변경을 위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통과로 주민의 생활권과 재산권을 보장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대구광역시와 안동댐·임하댐 맑은 물 공급과 상생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영주시와 상수도 상호 공급 협약을 맺는 등 물 산업 육성에도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민선 8기 권기창 시장은 임기 초반부터 지역개발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발걸음을 재촉했다. 모든 국정과제 및 공모사업을 면밀하게 분석하며 국가 예산 발굴에 주력했다. 국회와 중앙부처, 기업체의 문을 수없이 두드려 광역 네트워킹을 쌓고, 지역 역점사업 토론회, 포럼을 열어 각계 전문가들의 지혜와 경험을 숙원사업 해결에 총결집해왔다.

권 시장은 지금껏 꿈꿔보지 못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포부로 정주민구 30만, 경제인구 50만, 관광객 1천만 시대라는 원대한 목표를 두고 109개 공약으로 중장기 로드맵을 세웠다. 이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실현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반도체라 일컫는 바이오·백신 산업 매카 도시로 확실히 올라가기 위해 도전과 혁신을 이어간다. 시는 국내 우수 기업 유치를 산업단지 활성화를 이룰 '기회발전특구'와 헴프 규제자유특구 고도화를 위한 '글로벌 혁신특구' 유치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가 연 2,000명의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를 전격 나섰다.

안동시와 경북도는 지난 10월 포항공과대, 경북대, 안동대와 함께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를 위해 맞손을 잡았다.

안동은 국내 코로나 1호 백신이 생산된 곳으로 앵커기업인 SK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해 국제백신연구소, 백신상용화 기술지원센터,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등 비임상·임상·양산으로 이어지는 백신 생산 전주기를 지원하는 바이오 생태계가 구축돼 있어 상당한 입지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반도 허리경제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문경~안동 간 중부내륙 철도망 구축에도 전력을 쏟고 있다. 강남과 수도권을 잇고 신도청을 지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대구광역시에 대한 접근성도 확보해 행정·관광·산업 분야에 혁신적인 도약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범도민, 산학연관의 공감대 속에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총력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안동 원도심 성장의 열

쇠로 꿈꾸는 70사단부지 활용,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의과대학 유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 균형발전과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자유특구 등에도 사활을 걸고 추진을 이어간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시민의 신뢰와 자부심을 추진동력으로 다시 한

윤근수/기자

의성군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 보수 인상 요구 1인 시위

"정부와 국회는 하루속히 공무원 보수 인상에 대한 대책마련" 강구 시급

의성군청공무원노조는 지난 26일(금), 의성군청 청사 일대에서 정부에 내년도 공무원 보수인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의성군청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가 코로나19와 고물가 등의 이유로 공무원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 것을 반영해 '21년부터 '23년까지의 실질소득 감소분 누적치와 '24년도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고려해 내년도 전체 공무원 보수를 377,000원 정액으로 인상할 것과 정액급식비와 6급 이하 직급보조비를 각각 80,000원/35,000원씩 인상하고,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의 산정 방식을 민간수준으로 개편해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에 나설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준태 위원장은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낮은 보수인상을 통보하고, 무조건적인 희생만을 강요했다. 공무원의 희생으로 얻어진 결실이 마치 자신들의 업적인 듯 칭송만 늘어놓고, 공무원 노동자에게는 어떠한 보상도 주지 않았고"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올해 의공노는 그간 공무원의 희생에 대한 보상을 정취할 수 없도록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전국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요구안을 무조건 수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의공노는 정부가 요구안을 수용할 때까지 1인 시위와 홍보전 등을 전개하고, 6월과 7월 서울에서 진행되는 총력 투쟁대회에 참석해 공무원 보수 인상을 위한 지속적인 투쟁사업을 진행한다.

실제 취재진이 봐도 현 공무원의 보수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9급공무원 초임 봉급이 수당 포함 약 240여만원인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공제금을 제하고 나면 실제 지급되는 것은 150여만원 남짓, 생활비, 교통비, 식비 등을 제하고 나면, 공무원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20여만원도 채 안되다보니 젊은 공직자들은 결혼은 아예 엄두를 못내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공무원의 보수 인상요구는 매우 필요한 것이라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하루속히 이들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처우개선을 마련해, 이들 공직자가 보



다 열정을 다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므로써, 이들 젊은 공직자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하루속히 공무원 보수 인상에 대한 대책마련 협의를 통해 공무원 권익신장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윤근수/기자

골든타임 사수! 봉화군, 종합민원실 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봉화군은 지난 25일, 군청 종합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방문 민원인 또는 직원 등이 급성심장정지 등 응급 상황 발생 시 차분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응급상황 발생 시 빠른 대처 요령, 올바른 심폐소생술 방법,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방법 등 이론 교육에 이어 마네킹과 자동심장충격기를 활

용한 실습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가한 직원들은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응급상황에서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익찬 종합민원실장은 "어르신들의 방문이 많은 우리 군 특성상, 응급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이러한이 아닌 실습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부산시, 제29회 드림콘서트 연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추진

부산시는 지난 27일 오후 6시,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부산 최초로 열리는 '드림콘서트'와 연계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로 29회째를 맞는 드림콘서트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 '제1회 기후산업국제박람회'의 폐막을 알리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콘서트는 지난 1995년을 시작으로 케이팝 축제의 중심으로 성장했으며, 국내 최정상 아이돌들이 대거 출연해 국내·외 미래세대에 인기가 상당하다.

시는 이번 콘서트를 찾은 국내·외 미래세대와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 관계자 등 주요내빈을 대상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와 개최후보도시 '부산'의 역량과 매력, 그리고 유치 의지를 다채로운 방법으로 적극 홍보했다.

우선, 공연장 주출입구가 있는 아시아드주경기장 데크에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 '부기' 조형물 설치하고, 포토존을 조성했다. 미래세대를 비롯한 관람객에게 2030부산세계박

람회와 부산에 대한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으며, 또한, 공연시 포토존 앞에서 찍은 사진을 '2030부산세계박람회'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했다.

아울러, 입구, 귀빈실, 리셉션장 등 주요내빈(VIP)이 이동하거나 머무르는 모든 공간을 활용, 부산시의 새로운 도시브랜드와 결합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문구를 자연스럽게 표출했다.

이외에도 시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를 위해 ▲공연장 내부 대형 현수막 활용 홍보 ▲공연 전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영상 송출 ▲드림콘서트 공식 누리집 활용 홍보 배너 표출 ▲가로등 배너 활용 홍보 등을 추진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기후산업국제박람회와 드림콘서트처럼 파급력이 큰 대형 행사가 부산에서 열리게 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우리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부산을 찾은 국내·외 관람객들과 주요내빈들에게 2030부산세계박람회와 개최후보도시 '부산'의 매력과 역량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오는 11월 유치결정 발표까지 주요 국제행사와의 연계,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주제와 부주제, 그리고 개최후보도시 부산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제1회 기후산업국제박람회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관을 운영,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널리 알렸다.

송중진/기자

구미의 특색에 맞는 발전방향 모색

구미시는 26일 구미코에서 (사)한국지역개발학회 주관으로 '2023년 춘계학술대회: 지방시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경북도·철곡군 등 19개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공동 주최했다.

이 행사에는 학회관계자, 교수, 연구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역개발 및 불균형의 현안과 이슈에 담론을 형성하고 깊이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현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와 '국가균형발전'에 발맞춰 지역 스스로 발전전략을 결정하고 실현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였으며, '지방정부 기업유치 전략 방안', '지역 혁신생태계 역량 강화방안', '농촌 활성화' 등 다양한 주제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한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조덕호 대구대 교수 등은 구미시 특별 세션에서 '제4차 산업혁명 이후 구미시 발전 방향 및' 뉴스 데이트로 본 지역쇠퇴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발제를 통해 산업

도시 구미의 특색에 맞는 지역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논의의 장을 열었다.

김호섭 구미부시장은 "인구·자원의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응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 학술대회가 지방시대를 견인할 밑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시의 발전을 위한 전문가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 행정을 혁신하고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김동현/기자



청송군,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진보지역아동센터'개소

청송군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인 '진보지역아동센터'를 신축하고 지난 26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윤경희 청송군수를 비롯해 청송군의회 권태준 의장 및 군의원, 도의원, 기관 단체장, 이용 아동 등 3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다.

이번에 신축한 '진보지역아동센터'는 약 8억원(도비2억2천, 군비5억8천)의 예산을 들여 531㎡(160여평)의 대지 위에 220.65㎡(66평)의 지상1층 건물로 구성, 프로그램실, 사

무실, 급식조리실, 사무실 등으로 꾸며졌다.

특히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종합적인 돌봄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축해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체계적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지역아동센터 단독 전용공간으로 운영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아동들이 큰 꿈을 키워 미래를 주도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 아동들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아동복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세계 원자력 청정수소 산업울진군이 선도

손병복 울진군수, "수소는 탄소중립시대의 석유가 될 것"

울진군은 지난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기후산업국제박람회 특별행사 '원자력 청정수소 국제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원자력수소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제2차관, 손병복 울진군수, 한국수력원자력 황주호 사장을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원자력에너지기구, 프랑스 원자력 및 대체에너지위원회 등 국내외 산학연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 및 기술개발 동향, 한수원의 청정수소 기술개발 추진계획, 청정수소 경제성 및 상용화를 위한 과제, 법적제도적 해결방안 등이 논의됐다.

현재 국내 수소 시장은 석유화학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와 천연가스를 분해해서 만드는 개질수소 방식 위주다. 이 둘 모두 화석연료에서 수소를 만들기 때문에 탄소중립 달성에는 한계가 있다. 원자력수소는 무탄소 전력인 원자력으로 물을 분해하여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탄소배출이 없는 분당 생산 단가도 낮아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다.

지난 3월 15일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울진군은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원자력수소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원자력수소 공급시설 구축을 위해 한수원과 긴밀히 협력 중으로 한수원에서는 우선 10MW급 저온수전해 방식의 수소 생산 플랜트를 2024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수소는 탄소중립시대의 석유가 될 것"이라며 "원전 10기를 활용한 청정수소 대량생산으로 울진을 산유 도시로 만들고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수소 전주기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비약적인 지역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장문화/기자



구미시, (가칭) LS-HAI JV, 1,000억 규모 투자유치 성공

LS전선, 전기차용 경량 알루미늄 부품 공급

구미시가 국가산업단지 3공단(가칭)LS-HAI JV(Joint Venture) 유치를 성공했다.

LS전선은 2월 서울 LS용산타워에서 글로벌 알루미늄 전문 제조업체인 오스트리아 하이(HAI, Hammer Aluminum Industries)와 알루미늄 사업 합작법인 설립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양사가 오랫동안 완성차 시장에서 축적해 온 경험과 기술을 결합해 글로벌 알루미늄 부품 시장에 본격 진출계획을 수립해 국내 제조공장 설립을 검토 중에 있었다.

투자 검토 지역 후보군에 구미시가 포함됐다는 소식을 접한 김장호 시장은 9일 LS그룹 내 전기차 사업부를 총괄하고 있는 LS머티리얼즈 홍영호 대표를 직접 만나 50여 년간

축적된 구미산업단지의 제조산업 노하우 및 인프라를 직접 설명하고, 구미 투자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안하며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시는 이번 'LS-HAI JV' 유치를 통해 반도체, 방산 산업에 이어 전기자동차 부품산업을 또 다른 미래 먹거리로 적극 육성하며 지원할 계획이다. JV는 금년 투자를 통해 25년부터 배터리 케이스 등 EV용 고강도 경량 알루미늄 부품들을 양산, 27년에는 약 2,000억원의 매출을 거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HAI는 EV용 알루미늄 부품 분야 글로벌 1위이다. 오스트리아와 독일 등 유럽 4개국에 공장을 운영해 다임러와 BMW 등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그동안 LS전선은 현대기아차의 내연기관차에 고강도 알루미늄 부품을 수년간 공급해 왔다. 회사 측은 이번 JV 설립을 계기로 EV 중심으로 사업을 전환·확대할 계획이며 앞으로 LS머티리얼즈의 에너지, LS알스코의 친환경 소재, LS-HAI JV의 알루미늄 부품으로 이어지는 밸류 체인을 구축할 예정이다.

김동현/기자

김장호 시장은 "구미시 투자유치의 핵심은 발로 뛰는 적극성과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에 있다. 앞으로도 구미에 투자를 원하는 회사를 직접 찾아가고,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구미에 과감하게 LS 산업의 미래를 맡겨주시는 홍영호 LS머티리얼즈 대표님을 비롯한 LS 관계자분께 감사드립니다"고 했다.

3계 긍정마인드 실천! 문경시 시군평가 대응 전략 수립

시군평가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 개최 [새롭게, 재밌게, 멋있게] 행정의 끝없는 혁신 도모

문경시는 5월 25일(목) 시청 대회의실에서 백승모 부시장 주재로 각 부서 지표 담당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시군평가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개최했다.

시군평가는 경상북도 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부 합동평가와 연계하여 국정 주요 시책과 도정 역점시책 등에 대한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올해는 정량지표 82개, 정성지표 18개 총 100개의 지표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된다.

이날 진행된 보고회에서는 지난해 시군평가 결과의 부진사항을 분석하고, 금년 100개 평가지표(정량, 정성)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했으며, 부진지표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계획 마련과 실적제고 등 실적 향상을 위해 3계 긍정마인드 실천운동과 연계한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를 가졌다.

문경시는 앞으로도 보고회를 연중 수시로 개최해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분석·개선하고, 경북도 및

부서 간 유기적 소통으로 체계적인 지표 관리와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백승모 부시장은 "시군평가는 국·도정 주요 시책 과제를 지표를 통해 평가하는 과정으로, 담당 지표에 대한 정확한 업무 숙지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실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체계적인 시군평가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경북도 간 긴밀한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올해는 지표 담당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의미 있



는 성과를 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지표 담당자들은 부진한 지표를 더욱 세심히 살펴보고 목표값을 달성하여 금년엔 새롭게 도약하겠다는 각오를 다 함께 함차게 다짐했다.

윤근수/기자

영천시, 청년 리더십 워크숍 시행!

영천시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 동안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영천시 청년정책참여단, 영천청년센터, 관내 청년 30여 명을 대상으로 워크숍 첫째 날에는 경상남도 거제시 청년마을 내 청년 거점 공간인 '메이커스캠프'를 방문해 '공유를 위한 창조(거제시 청년기업)의 손오진 팀장의 '청년마을' 관련 강의와 영천시 청년마을의 방향성에 관한 토의, 거제시 청년마을 프로그램인 목공, 실스크린을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유경훈 청년활동가의 '관계인구 참여 및 협업사례'에 관한 강의와 강구민 영천청년센터장의 '청년리더십에 관하여'라는 심도 있는 주제의

강의가 이루어졌고 청년 문화 향양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가인 '아유 공연단'의 클래식 공연도 함께 진행되어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두 번째 날에는 거제시 명소 '매미성'을 방문하고 '서핑'을 배우는 등 보다 활동적이고 새로운 문화거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주말에 귀한 시간을 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청년들에게 감사하다"라며,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실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발굴 활동이 지속되길 바라며, 영천시를 대표하는 청년활동가들과 함께 청년이 행복한 영천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반식/기자

영주소백산철쭉제 폐막... "연분홍 철쭉 향연선사"

주말 이틀 동안 3만여 명이 참여해

소백산철쭉제 즐겨

열기구 체험 등 서천둔치서

시민들 다양한 체험행사 참여

연화봉에서 펼쳐진 '비바, 클래식

with 영주소백산' 이색

박남서 시장,

"소백산 철쭉제가 대한민국 대표 봄꽃 축제로

발돋움토록 노력"

경상북도 영주시가 주최하고 (재)영주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 영주소백산철쭉제가 연분홍빛 철쭉이 절정에 이른 지난 주말(27~28일) 성황리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지호락 : 알리고·느끼고·함께 즐기자'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비가 오는 곳도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국에서 몰려 온 등산객과 관람객, 시민등 3만여 명이 찾아와 소백산 철쭉의 아름다운 향연을 맘껏 즐겼다.

이번 축제는 종전의 소백산 인근에서만 개최되던 지난 행사의 컨셉과 달리 축제장을 시민 휴식처인 서천 둔치(영주교 일대)로 확대해 소백산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영주 고유의 문화를 체험하고 즐기는 축제로 진행됐다.

축제기간 동안 소백산 정상에서는 클래식 피아노 공연 '비바, 클래식 with 영주소백산'이 상시공연으로 펼쳐졌고 서천둔치에서는 철쭉버스킹과 축하공연, 철쭉 무비극장, 열기구 체험, 문보트 체험, 클라이밍&어드벤처 체험, 플라워 포토존, 영주사와 나눔 이벤트, 희망캠페인 팔찌만들기, 알자기 대결, 국궁체험, 철쭉 반지만들기 체험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소백산 연화봉 정상에서 등산객을 대상으로 새롭게 시도된 피아노 공연인 '비바, 클래식 with 영주소백산'은 연분홍으로 물든 철쭉을 배경으로 지역 피아니스트인 김채령, 권오선이 참여해 아름다운 피아

노 연주를 통해 방문한 등산객의 눈과 귀를 만족시켜 줘, 큰 화제를 이끌어 냈다.

또한, '별빛 낭만 열기구'는 5대의 열기구가 창공을 날며 체험객들에게 아름다운 서천을 조망하는 체험을 제공했고 서천에 뜬 초승달 모양의 '달빛 낭만 문보트'는 은은한 조명으로 수변을 밝히며 축제 분위기를

주부는 "자신은 해마다 소백산 철쭉제에 참석한다"면서 "올해는 유달리 철쭉꽃이 너무도 아름다워, 지금까지 본 것중 최고의 철쭉꽃"이라고 엄지를 치켜 세웠다.

이번 축제는 통상적인 의식행사인 축제 개폐막식을 생략하고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대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추

신일 연휴까지 정상근라지에서 연분홍 철쭉을 감상할 수 있어 참으로 좋았다"면서 "이번 축제는 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주말 동안 온 가족이 함께 즐기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영주소백산 철쭉제가 대한민국 대표 봄꽃 축제로 발돋움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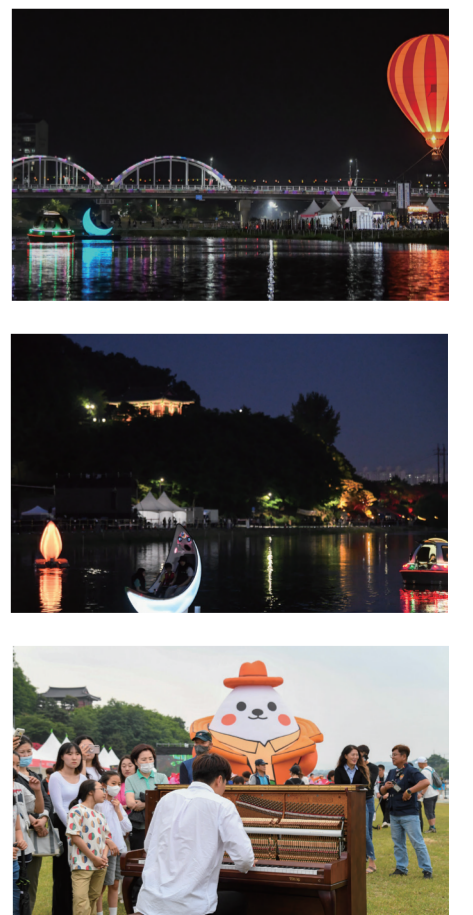
고조시켰다.

재단은 지난 28일, 삼가야영장 입구에서 영주소백산철쭉제를 즐기러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영주사과를 홍보하기 위한 영주사과 300개 나눠주기 행사를 진행해 깜짝 선물을 제공했다.

소백산 정상에서 취재진과 만난 서울에 살고 있는 K오씨(여, 58세,

진함으로써 '시민이 주체적으로 영주 고유의 문화를 느끼고, 축제를 즐기고, 소백산의 아름다움을 알리겠다'는 축제의 주제를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을만큼 손색없는 봄의 대향연 축제였다.

박남서 영주시장장은 "소백산 철쭉개화시기가 지난해보다 일주일 가량 빨라져 철쭉제가 열리는 석가탄



영양군우리음식연구회,치유가 필요한 우리를 위한『치유밥상』교육 실시

영양군은 지난 25일부터 6월 2일까지 영양군우리음식연구회 회원을 대상으로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치유밥상" 교육을 진행했다.

영양군우리음식연구회는 영양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는 관내 여성 학습단체로 코로나19가 유행했던 시기에는 밀키트 교육을 진행했고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방식으로 밀키트 무료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올해는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서 '치유밥상'이라는 주제로 취나물, 가지, 사과, 부추, 상추 등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해 간단하지만나 자신과 내 주위를 치유할 수 있으며, 지친 하루를 보상에 줄 수 있는 한상을 차릴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한다.

이육용 영양군우리음식연구회 회장은 "다양한 식재료를 지역 향토 음식에 활용해 대중적인 지역 메뉴를 개발하고 이를 알리는 행사나 전시 등 우리음식연구회의 활동을 통해 영양군의 건강한 농산물을 홍보하고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가의 소득 증대에 조금이나마 기여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양군, 단계별 치매환자 돌봄을 위한 가족프로그램 운영

영양군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오는 6월 29일까지 8회기의 과정으로 단계별 치매환자 돌봄을 위한 가족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한다.

'단계별 치매환자 돌봄을 위한 가족프로그램' 시범운영은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수정·보완하여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확산 및 보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또한 회기별로 증상관리, 일상생활관리, 행동심리증상관리, 안전관리, 의사소통관리 등 치매 단계별 다양한 돌봄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는 '단계별 치매환자 돌봄 가족프로그램'에 참여한 치매환자 가족 4명(실험군), 참여하지 않은 치매환자 가족 4명(대조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치매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치매환자와 가족이 지역에서 오래 함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7월부터는 치매가족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산림 및 농업 치유프로그램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양군 치매안심센터 치매 가족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근수/기자

안동시, 지방시대 주도하는 조직개편 단행해!

- '행정기구설치 조례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동시의회 통과
- 지방시대정책실 신설과 맑은물사업본부(4급) 설치
- 시 승격 60년 만에 처음, 농정부서와 농업기술센터 통합!!



안동시가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미래농업과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열민선 8기 권기창 시장의 철학과 미래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 9개월 동안 시의회와 함께 조직진단,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련돼 제241회 안동시의회(임시회)에서 5월 25일 통과됐다.

이번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은 ▲ 인구정책 부서 신설, ▲관광분야 개편, ▲종합허가과 신설, ▲맑은물사업본부 설치, ▲농정부서와 농업기술센터 통합 등이다.

우선,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 부서를 신설한다. 귀농·귀촌, 은퇴자 유치, 생활인구 확대, 청년 일자리 창

출 등 다양한 인구정책을 발굴하여 지역 불균형 해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한다.

1,000만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관광 분야를 개편한다. 3대문화권사업 완료에 따라 유교 문화권사업과 관광인프라과, 관광진흥과를 관광정책과로 개편, 관광 관련 정책과 사업을 보다 전문화하고 세분화해 관광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모두 한층 업그레이드한다는 계획이다.

시민 편의 중심 'ONE-STOP 서비스'를 위해 종합허가과를 신설한다. 인허가 공무원 간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민원 1회 방문으로 관련 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어 민원 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번 조직개

편은 정원 증원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다만, 경북도의 승인을 받은 맑은물사업본부 설치를 위해 본부장(4급) 1명, 5급 3명이 직급 조정됐다. 이로써, 인사적체가 다소 해소되면서 향후 인사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권기창 시장은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인구', '농업', '관광', '물'이다"라며 "시민 편의 최우선을 위해 농업과 민원행정을 일원화했고, 안동의 먹거리인 관광과 수자원 관련 기구·인력을 재정비해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성 높은 조직이 되도록 했다"라며 특히 "조직개편에 좋은 의견과 함께 협조해 준 안동시의회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대구농업기술센터, 직원 강의기법 경연대회 개최

지난 22일, 농업분야 교육훈련 전문가 양성을 위한 강의기법경연대회 실시

대구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공무원의 지도 능력 배양과 창의적 강의 기법 발굴로 농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훈련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직원 강의 기법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연대회는 지난 22일(월), 강의분야 경진을 통해 직원 강의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분야별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스스로 학습하고 연구하는 조직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실시됐으며, 5개 팀이 참여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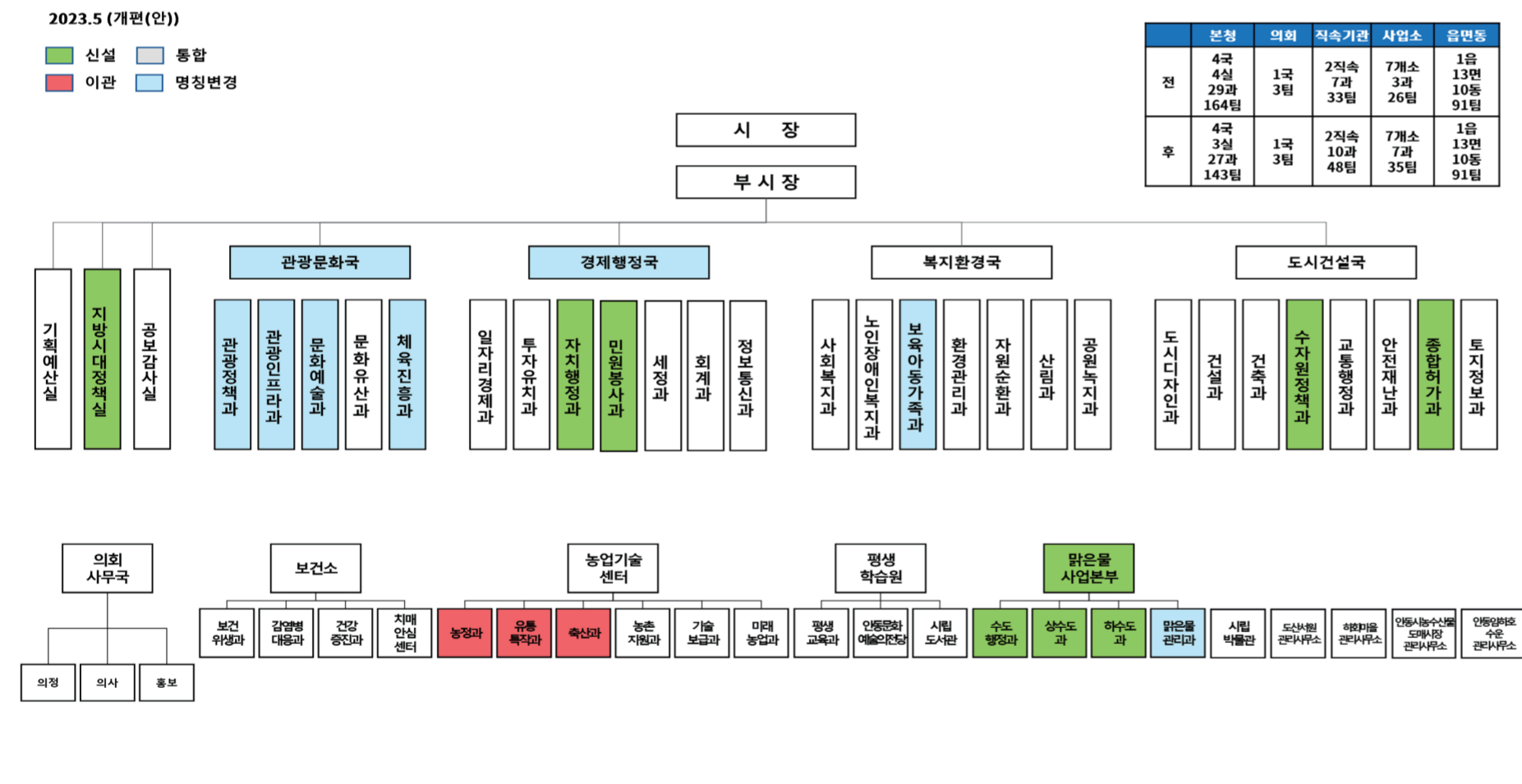
경연에 참가한 팀은 퇴부부속도, 농작업 안전 등 농업분야 중 강의기법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 주제를 선택, 팀별 스터디와 토론을 통해 수준 높은 내용의 강의 자료를 준비하여

15분간 발표했다.

주요 평가 요소는 주제 내용 충실성, 자료의 독창성, 전달력, 청중의 호응도이며, 현장에서 참여한 청중 모두가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시상했다.

오명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처음 시도되는 강의기법 경연대회였지만 직원들의 적극적 참여로 강의 분야 능력배양에 큰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적 연구를 통해 농업현장에 필요한 교육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강의 능력 배양이 이루어져 농업 교육훈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남해군 '섬호마을'해수부 공모 사업 선정, 51억 투입

2024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 '강진만 생태체험 관광 중심지'

남해군은 '섬호권역 다(多)가치 필터 조성사업'이 해양수산부 주관 공모사업인 '2024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 사업비 51억원(국비 34억원)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어촌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지역별 특화발전 도모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섬호권역 다(多)가치 필터 조성사업'은 2024년부터 5년간 '강진만 생태체험 관광 중심지, 섬호마을'이라는 비전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강진만 갯벌의 생산물과 체험을 활용한 소득사업 선순

환구조로 '다시 살아나는 마을'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마을회관 증축, ▲보안등 등 안전시설 조성사업 ▲섬호체험관광센터 건립 ▲석방형 체험장 조성 ▲섬호스테이션 조성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장충남 군수는 "이번 공모사업의 선정은 전년도 공모 탈락에도 불구하고, 섬호마을 주민들의 공모 재신청에 대한 높은 열의를 바탕으로 남해군과 섬호권역 주민, 추진위원회 등 모두가 합심하여 만들어낸 노력의 결실"이라며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현/기자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범어지하도상가, '우리 가족 행복 플리마켓' 개최

지역 예술인과 시민이 함께하는 플리마켓 개최

5월 가정의 달을 기념해 30일부터 31일까지 양일간 범어지하도상가 광장에서 '우리 가족 행복 플리마켓' 행사가 개최된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플리마켓 행사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무료 체험행사와 볼거리 제공을 하고 시민들에게 지역기업의 제품을 소개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단은 소상공인과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플리마켓 운영비용을 지원하고 참가 기업과 예술인은 참가비 전액 및 부스 운영 수익금 일부를 홀트아동복지회에 기부해 소외계층을 지원한다.

윤근수/기자

플리마켓 참여자 모집은 사회적기업 ㈜아이나리에서 실시하며, 우리 지역 내 경력단절여성, 시민작가, 소규모 사회적 기업, 예술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한다.

문기봉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문기봉 이사장은 "공단과 시민이 함께 소통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행사를 기획했다"라며, "앞으로도 도시 곳곳에 가족 단위의 시민들이 부담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행사를 꾸준히 개최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산시·범시민유치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후원 기부금 전달식 개최

5.26. 11:00 시청 의전실, 고려제강(주) 등 지역기업 5곳 10억 원 쾌척

기부금 범시민유치위 전달,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 대상 유치교섭 활동에 사용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결정의 순간까지 6개월여를 앞두고 시가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 이를 돕기 위해 지역기업 5곳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10억 원이라는 거금을 쾌척한다.

부산시와 (사)2030부산월드엑스포 범시민유치위원회(이하 범시민유치위)는 오늘(26일) 오전 11시 시청 의전실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후원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이번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후원 행렬에 동참한 5곳의 기부 기업 대표들이 참석하며, 박형준 시장은 부산시를 대표해 기업 대표들에게 기부금을 직접 전달받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이번 기부에 동참한 기업은 총 5곳으로 ▲ 고려제강(주)(회장 홍영철) ▲ ㈜서원유통(대표 김병찬) ▲ 국민은행 부산울산경남지역그룹(이혁 대표) ▲ 종로전기(대표이사 박동천) ▲ 효성전기(대표이사 정진근)이다.

이번 기부금은 전액 범시민유치위

에 전달,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 대상 유치교섭 활동 등 오는 11월 유치 결정의 순간까지 시가 펼칠 총력전에 대부분 쓰일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지역기업의 기부행렬이 올해 유치 원년을 맞아 더욱 집중되고 있다"라며, "기업들의 소중한 기부 참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시는 이에 힘입어 2030세계박람회 유치도시 최종 발표까지 전력을 다해 뛰겠다"라고 결의를 다졌다.

아울러,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유치와 성공 개최가 부산, 나아가 대한민국으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우리시는 남은 6개월 동안 진행될 2번의 경쟁 프레젠테이션(PT)과 회원국 대상 심포지엄 등을 활용해 득표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9월 국제박람회기구(BIE)에 2030세계박람회 유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공식 유치 활동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1~3차 경쟁 프레젠테이션과 국제박람회기구 현지실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바 있다.

송종진 / 기자

경남도 정책자문위원회, 내실 있는 신규 정책 제안 발굴



경남도는 26일 오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박재만 위원장 등 20명, 실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출범식 이후 6개 분과위원회별로 활동사항을 발표하고 하반기 활동계획을 공유했으며, 도정 발전을 위해 발굴하고 개발한 신규정책을 제안했다. 또, 도정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자문위원 6명을 보강함에 따라 신규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도 함께 진행했다.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는 기획조정, 산업기술과학, 건설안전, 문화관광, 교육복지보건, 농해양환경 등 6개 분과, 33명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출범 이후 분과위원회별로 회의, 정책토론회, 포럼 등 30회의 활동을 추진하며 총 63건의 신규정책을 발굴했다.

이어 분과위원회별로 회의를 거쳐 17건의 신규정책을 최종 선정해 경남도에 제안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날 각 분과위원장이 신규정책의 제안사항을 직접 발표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핵심소재 자립화를 통한 안정적 공급망 확보와 전략소재 수출규제에 대응을 위한 '국방항공 소재 부품 자립화를 위한 거대생산 장비 구축'이 제안됐다. 복지

분야에서는 노인학대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창원, 김해, 양산을 총괄하는 '동부권 노인보호전문기관 증설'이 제안됐다.

그외에도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사회적 독립을 위한 기업매칭, 민간영역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상 관리감독자 교육지원, 남해안권 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한 남해안 방문의 해 사업 등 다양한 정책들이 논의됐다.

이날 참석한 박재만 위원장은 "출범 이후 분과위원회별로 실질적인 정책 자문에 역량을 집중하며 신규사업을 제안했다"며 "앞으로도 경남 발전을 위해 우리 위원들이 힘과 지혜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자문위원님들의 도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도정이 달라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좋은 정책들을 발굴하고 제안해 주신다면 경남도가 더욱 열심히 해서 도민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지속하고자 도정의 주요 현안 중 과제를 선정해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도출하는 한편, 전문가와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정책 개발과 연구, 자문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근수 / 기자

경상북도개발공사, 2022년 개인정보관리수준진단 '최고등급' 달성

- 최고등급인 'S등급' 달성, 개인정보보호 우수기관 선정
- '22.9월 제2회 개인정보보호의 날 개인정보보호 유공기관 표창 수상
- 이재혁 사장, "개인정보보호 더욱 강화, 고객 정보를 지켜 신뢰받는 공사" 매진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무총리 직속기관) 주관 '2022년 개인정보관리 수준진단'에서 최고등급(S등급)을 받아 개인정보보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매년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개인정보 보호대책 및 침해대책 등 3개 분야 23개 항목 67개 세부지표에 대해 1차 자체진단과 2차 외부전문가 진단을 통해 개인정보관리수준진단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22년 공공기관 개인정보관리수준진단을 살펴보면, 국무총리 직속인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총 799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021년 7월 1일부터 지난 12월 31일까지 1년 반동안 안정성지표 80점, 정성지표 20점을 평가하였다.

평가등급은 5개등급으로 평가하여 S등급 90점 이상, A등급 80점 이상, B등급 70점 이상, C등급 60점 이상, D등급 60점 미만으로 평가해, 경상북도개발공사가 당당하게 최고등급인 S등급의 영광을 거뒀다.

한편, 경상북도개발공사는 지난해 9월('22.9.30.)에도 개인정보처리 단계별 모니터링, 개인정보 유출 대응 모의훈련 실시, 개인정보보호 우수부서 인센티브제도 시행 등 임직원 보안의식 제고와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 받아 '제2회 개인정보보호의 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장관)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유공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이재혁 사장은 "개인정보보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러한 결과는 임직원 모두가 개



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안의식을 높이며, 최상의 관리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이다"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

를 더욱 강화하고, 고객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켜 신뢰받는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영천시, 청년 리더십 워크숍 시행!

영천시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 동안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영천시 청년정책참여단, 영천청년센터, 관내 청년 3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도 영천시 청년 리더십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영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 후 구성된 영천시 청년정책참여단과 관내 청년들의 역량 강화 및 타 지자체 청년정책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추진됐다.

워크숍 첫째 날에는 경상남도 거제시 청년마을 내 청년 거점 공간인 '메이커스캠프'를 방문해 '공유를 위한 창조'(거제시 청년기업)의 순유진 팀장의 '청년마을' 관련 강의와 영천시 청년마을의 방향성에 관한 토의, 거제시 청년마을 프로그램인 '목공, 실크스크린'을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유경훈 청년활동가의 '관계

인구 참여 및 협업사례'에 관한 강의와 강구민 영천청년센터장의 '청년 리더십에 관하여'라는 심도 있는 주제의 강의를 이루어졌고 청년 문화 함양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가인 '아유 공연단'의 클래식 공연도 함께 진행되어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두 번째 날에는 거제시 명소 '메이성'을 방문하고 '서핑'을 배우는 등 보다 활동적이고 새로운 문화거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주말에 귀한 시간을 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청년들에게 감사하다"라며,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실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발굴 활동이 지속되길 바라며, 영천시를 대표하는 청년활동가들과 함께 청년이 행복한 영천시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반식/기자

'럭키세븐 경북여행 100선&경북나드리 출석체크' 이벤트 실시

경북여행지 방문하고! 인증샷 올리고! 출석체크 하면! 푸짐한 상품이 내 손에

경북도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오는 6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경북나드리 홈페이지에서 도내 관광 명소 및 축제 100선을 지정해 '럭키세븐 경북여행 100선&경북나드리 출석체크' 이벤트를 실시한다.

경북도는 문체부에서 지정한 6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돌려 전 국민 여행분위기를 조성하고, 2023~2024 한국방문의 해와 연계해 경북을 방문하거나 경북에 관심 있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이벤트를 준비했다.

럭키세븐 경북여행 100선 이벤트는 경북 인생샷 명소를 필두로 방

문객들이 자주 찾는 주요 관광지 100선을 선정해 해당 지역을 방문하고, 인증샷 촬영 후 경북나드리 이벤트 페이지에 인증샷을 올리거나 퀴즈를 풀면 즉석 룰렛 추첨으로 1천원에서 5천원의 상품권을 제공한다.

매월 이벤트에 참여하는 충성 고객들을 위해서는 특별한 연말 결산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럭키세븐 이벤트답게 럭키세븐 여행지 77개소 이하 방문자 중 77명을 추첨해 사이소 한우세트, 77~99개소 이하 방문자 중 7명을 추첨해 풀빌라 숙박권, 100개소의 장소 미션을 모두 방문했다면 1명

을 추첨해 호텔 숙박권을 증정한다. 또 매일 관광객에 갈 수 없다면 지금 당장 경북나드리 홈페이지에 접속해 출석체크 인증을 하면 출석횟수에 따라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증정한다.

매월 15회 이상 출석체크 한 경우 커피 상품권을, 25회 출석체크 한 경우 치킨 상품권, 한 달 모두 개근한 경우 상품권 5만원을 제공한다.

이벤트 결과는 매일 매일 경북나드리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발표되며, 연말결산 이벤트 결과는 12월 말 경북나드리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북나드리 홈페이지와 경북나드리 SNS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리얼코리아 경북, 글로벌 K-관광을 선도하는 경상북도는 축제·웰니스·캠핑 콘텐츠의 선도주자로 콘텐츠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에 힘쓰는 결과, 4월 누적 경북 방문 관광객이 1천2백만명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라며, "6월부터는 '여행가는 달'을 맞아 더욱 다양한 관광 상품이 준비돼 있으니 관광지를 방문하고 온라인 이벤트에도 참여해 경북에서만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매력을 경험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럭키세븐 경북여행 100선 & 경북나드리 출석체크 이벤트

이벤트 기간 | 2023. 6. 1. ~ 12. 10.

참여 방법

1. 7가지 테마의 참가사건별 출석체크를 방문하기
2.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해 미션 수행하기
https://luckyseven.go.kr/ (QR코드 스캔) (로그인 필수)
3. 미션을 수행함과 동시에 기프티콘 증정
4. 미션 완료 시 77~99개소 방문자 7명 추첨, 50만원 상당 풀빌라 숙박권 증정
5. 미션 완료 시 100개소 방문자 1명 추첨, 100만원 상당 호텔 숙박권 증정
6. 50만원 상당 풀빌라 숙박권 증정
7. 100개소 방문자 7명 추첨, 100개소 미션 완료 시 1명 추첨, 100만원 상당 호텔 숙박권 증정

이벤트 대상

- 1. 경북여행 100선 인증샷 촬영, 100개소 이상 방문자 중 100명 추첨
- 2. 경북나드리 출석체크 인증
- 3. 미션 수행 시 15회 달성, 추첨 77인 스타벅스 기프티콘 증정
- 4. 미션 수행 시 25회 달성, 추첨 100인 스타벅스 기프티콘 증정

문의 | 경북나드리 카카오톡 채널

전남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전국 최다 선정

어촌 분야 고흥·신안·완도·장흥 등 5개소 국비 166억 확보

전라남도는 해양수산부의 '2024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응모한 5개소가 모두 선정돼 국비 166억 원을 확보하는 등 전국 최다 선정 쾌거를 거뒀다고 밝혔다.

행복한 삶터 조성, 시군 역량 강화 사업 등 2개 유형으로 추진된 이번 공모사업에서 전남도는 5개소가 선정돼 총사업비 240억 원 중 166억 원을 확보했다. 지난해엔 4개소 국비 151억 원 확보했다.

유형별로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은 기초생활 기반 시설을 확충해 어촌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것이다. 선정 사업은 ▲고흥 두원면권 40억 원 ▲신안 증도면 중동권역 93억 원 ▲장흥 안양면권 67억 원 ▲완도 생

일면권역 39억 원이다.

시군 역량 강화사업은 어촌지역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 리더 및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지원, 주민교육, 국내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장흥이 선정돼 1억 원을 지원 받는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전남도와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꼼꼼히 수립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전국 최다 사업비를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다"며 "낙후 어촌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해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중배기자



“해남팔경 주광낙조를 한눈에” 화원 해안도로 열렸다

목포 구등대~양화간 지방도 개통, 화원면 해안 일주도로 연결 박차

해남군 목포구(木浦口) 등대에서 양화를 잇는 지방도 803호선이 25일 개통했다.

이번 개통 구간은 미개설됐던 2.6km로 지난 2018년부터 사업비 229억 원을 들여 공사를 추진해 왔다.

목포구 등대에서 양화간 도로는 육지의 관문인 목포구인 시아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해안도로로, 180도 전망이 탁 트인 에메랄드빛 바다와 아름다운 해안가의 낙조 풍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특히 화원면 매월리의 목포구 등대는 대한제국 말기인 1908년 축조된 7.2m 높이로 95년간 육지의 관문인 목포구의 이정표가 되어왔다. 지난 2003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36.5m의 새 등대가 건립되면서 쌍둥이 등대를 배경으로 서해바다의 환상적인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해남이 명소로 꼽히고 있다.

해남군은 목포구 등대 일원을 관광명소화하기 위해 예술의 등대 전 시관 조성 등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도로 개통과 함께 도로 주변 해안선을 따라 산책로 및 전망대도 설치되어 관광객들이 편안히 쉬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해남군 화원면 일대 도로 교통망 확충이 속속 추진되고 있어 오시아노 관광단지과 솔라시도 기업도시 활성화에도 청신호가 되고

있다.

이번 목포구 등대~양화간 도로개통에 이어 화원 후산~장수간 해안도로 개설이 추진중으로 목포구등대~장수리~오시아노 관광단지까지 해안도로 약 23km를 잇는 인프라가 구축된다. 또한 국도 77호선 마지막 연결 구간인 화원~신안 압해를 잇는 해저터널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현재 공정을 9%로 해저터널 2.73km 굴착을 위한 토공 작업중으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남 화원~목포 달리고 구간 해저터널을 포함해 총연장 13.49km가 연결되면 서해안고속도로, 무안국제공항고속도로와 연계해 관광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에는 해남군 산이면 대진리에서 영암군 삼호읍 서호교차로(IC)을 연결하는 총연장 12.19km, 4차로 도로가 개통했고, 해남 마산~산이 간 4차선 확포장 공사가 설계 진행 중으로 솔라시도 기업도시와의 교통망 확충도 눈에 띄게 속도를 높이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목포 구등대~양화간 해안도로가 개설됨으로써 해남의 해안이 지닌 또 다른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삶을 편리하게 하고, 관광활성화 등에 기여할 주요 교통망 확충에 만전을 기해 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윤선애기자

광주광역시, '5월 광주창업포럼' 개최

광주광역시와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31일 광주역에서 지역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5월 광주창업포럼'을 개최한다.

광주역은 다. 광주시는 '창업성공률이 높은 기회도시 광주'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호남권 최대 창업지구(밸리)가 조성될 예정지인 광주역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포럼을 주기적으로 열고 있다.

광주창업포럼은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창업문화 확산을 위해 창업자들로 구성된 민간 운영위원회 및 창업지원기관 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 투자사, 언론 등과 협업체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오후 4시에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지난 3월부터 매월 200여 명의 참여자들이 참여하는 등 지역 대표 포럼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전환도시 광주, 창업 생태계의 길'을 주제로 ▲창업지원사업 설명회 ▲전문가 초청강연(김영록 넥스트챌린지 대표) ▲투자유치설명회(IR) 등이 진행된다.

창업지원사업 설명회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콘텐츠 분야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와 초기창업자들을 위해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창업지원사업을 소개하고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을 안내한다.

초청강연을 맡은 김영록 대표는 '전력의 늑대', '변종의 늑대' 등의 저자로 창업기업 생태학자, 창업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디지털 전환도시 광주, 창업생태계의 길"을 주제로 디지털 전환시대의 지역 창업기업 성장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투자유치설명회(IR)에는 지역 창업기업이 자사의 기술과 제품(아이템)을 홍보하고 지역 투자자와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포럼에는 ㈜넷프림, ㈜넷프림 등 2개사가 참여한다.

주최회 경제창업실장은 "창업포럼을 꾸준히 개최해 지역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창업문화를 광주 전역으로 확산시키겠다"며 "광주역을 중심으로 조성될 창업지구(밸리)를 통해 지역 창업기업들의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수기자



28만 순천시민, 누리호 3호 성공 발사 환영

꿈과 도전의 뉴스페이스, 한화와 함께 내딛는 큰 걸음



노관규 순천시장은 "전 국민의 꿈을 싣고 우주로 향해 솟아오른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3호' 발사 성공에 28만 순천시민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3차 발사는 실제로 우주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8개의 실용위성을 탑재한 최초 비행이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체계종합기업으로서 누리호 제작 총괄 관리, 발사 준비와 운용과정에 처음 참여했다는 점에서 민간 주도의 우주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4월 14일 울촌1산단에 발사체 단 조립장을 유지한 순천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뉴스페이스 시대를 준비하고 무한한 도전과 가치를 창출하는 우주경제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2027년 발사 예정인 누리호 6호기부터 울촌1산단 공장에서 조립 및 시험평가검증이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6월 투자 협약에 이어 연내 단조립장 건립에 착공하여 우주발사체 조립 거점화 및 발사체 연관산업 유치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다.

이승준기자

또한, 순천시는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우주산업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국가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실행을 반영한 순천시 우주산업 전략 계획 등 중장기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노관규 시장은 "전남(발사체)-경남(위성)-대전(R&D)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해 뉴스페이스(Newspace) 전조기지로 도약하고 우주로 경제영토를 확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장흥군, 정책기획역량 강화 “경북권 성공사례 배운다”

김성군수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슬로시티 활성화 추진하겠다”



장흥군은 공직자 정책기획역량 강화를 위해 경북권 3개 지자체를 방문했다.

김성군수를 포함한 30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장흥군 정책연구단은 지난 23일과 24일 경북권 정책 우수 사례를 견학에 나섰다.

답사 주제를 지방소멸, 인구감소 대응과 국제슬로시티 활성화로 선정하고, 관련 정책에서 성과를 보이는 경북 의성군, 영덕군, 청송군을 방문했다.

공공자치 분야의 전문가와 동행한 이번 답사는 각 지자체장 면담, 사업관계자 강의, 주요 사업장 견학 순으로 이루어졌다.

경북 의성군은 지난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경상북도 영천군은 영천면 일대에 이웃사촌 시범 마을을 조성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청년 취창업과 주거가 복합된 마을을 조성하고 청년들이 실제로 진입하는 등 성과를 보이자 경상북도는 사업을 확대 운영해 영천시와 영덕군 2개 지자체를 추가 선정했다.

경북 영덕군은 '블루루드'라는 전국적으로 이름난 해안 트레킹 코스가

구성되어 있다.

트레킹을 취미로 하는 청년들이 이곳에 모여 '뚜벅이 마을'이라는 청년마을을 조성했다.

취미를 기반으로 관계가 형성되며 자연스럽게 지역 정착으로 이어졌고, 군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처럼 영덕군은 지역이 보유한 자원을 살려 청년 유입은 물론 관광객 유치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경북 청송군은 2011년 슬로시티 최초 지정 후, 3회 연속 재인증 받은 산촌형 슬로시티다.

청송군은 '산소카페 청송군'이라는 도시 브랜드에 걸맞게 깨끗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산소카페 청송정원, 덕천마을 한옥스테이 활성화 사업 등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우움을 추구하는 슬로시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성군수는 "이번 벤치마킹에서 학습한 사례들을 군정에 접목하여 실효성 있는 인구감소 대응 정책과 슬로시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원기자

천년 나주 역사 품은 문화재 밤축제 6월 2~4일 개최

'가자! 조선의 도시 천년의 시간여행' 제3회 나주 문화재 야행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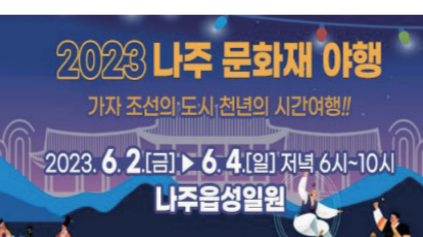
전라도의 중심 나주 천년의 역사를 품은 문화재 버거리 축제가 6월 2일 개막한다. 작은 서울, '소경'으로 불리었던 나주 원도심 문화재를 야간에도 개방해 초 여름밤 고즈넉한 낭만을 선사한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내달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원도심 읍성권 일원에서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나주문화재 야행(夜行), 가자! 조선의 도시 천년의 시간여행' 축제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문화재 야행은 '달 밝은 밤, 살며시 떠나는 여행 8夜'를 주제로 낮밤으로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축제 행사다.

축제 테마인 '8夜'는 △밤에 비춰보는 문화재 '야경(夜景) △밤에 듣는 역사 이야기 '야사(夜史) △공연 이야기 '야설(夜說) △밤에 걷는 거리 '야로(夜路) △진상품 장사 이야기 '야시(夜市) △밤에 보는 그림 '야화(夜畵) △음식 이야기 '야식(夜食) △문화재에서의 하룻밤 '야숙(夜宿)'으로 구성됐다.

축제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6월 2일 오후 7시 서성문, 정수루, 금성



관 일대에서 '야단법석 난장판'을 테마로 정수루 타고, 개막 공연 등으로 꾸며진다.

개막식에는 사전 접수 이벤트(나주VIP)를 통해 신청한 초청자, 전남대학교 석박사 과정의 외국인 유학생, 국내 거주 외국인 250여명이 특별 손님으로 초청돼 관광 홍보 효과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축제 기간 음식 돌담길 투어, 전통화 체험프로그램, 로컬푸드 먹거리 판매, 거리공연 등이 사흘간 축제 현장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나주읍성 수문장 교대식, 포도대장과 순라꾼 야행, 댄스·버스킹·게릴라콘서트, 나주목 사진 전시, 유·무형 문화재 명인전 등 볼거리와 조선 보부상, 다듬이 소리, 사매기 골동품 판매 등 이색적인 체험이 진행된다.

나주목사내야, 한옥 게스트하우스,

서성문 잔디광장에서는 휘영청 달 밝은 밤하늘을 지붕 삼아 1박2일 숙박, 무박 캠핑을 즐길 수 있다.

이명규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나주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주변 화콘텐트를 연계한 천년 나주 역사문화화를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축제를 통해 원도심 상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밝혔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의 보물인 원도심 문화재를 활용한 특색 있는 밤 축제로서 역사문화관광 1번지 도약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나주목관아 복원·정비, 야간 경관 활성화, 나주전 생애 복원을 통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나주밤상 먹거리 관광 명소화 등 통합적인 관광 정책을 통해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나주 문화재 야행은 문화재청과 전라남도, 나주시가 주최, 나주읍성권 도시재생주민협의체가 주관한다.

자세한 내용은 '2023 나주문화재 야행'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안기자

남원시 춘향홍보대사 위촉

제93회 전국춘향선발대회 수상자 6명 3년간 남원 알린다.



제93회 전국춘향선발대회 수상자 6명이 남원시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시는 27일 시청 회의실에서 위촉식을 열고, 제93회 춘향선발대회 춘향진 김주희 양(22, 전주, 목원대학교 국악과 재학)을 비롯, 춘향선발대회 수상자 6명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남원시는 매년 선발되는 춘향 수상자를 남원시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춘향 수상자들은 앞으로 3년간 남원시 공식 홍보 모델로서 국내외 관광·축제 및 대규모 행사에 참가해 홍보하고 고향사랑기부제 등 남원과 춘향문화를 알리는 일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

김주희 양은 이날 위촉식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전통미인을 상징하는 춘향 진에 선발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국악을 전공하는 재원으로 앞으로 국악의 도시 남원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남다른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최경식 시장은 "남원을 제2의 고향으로 여겨졌으면 좋겠고, 우리 지역 대표 민족문화인 춘향의 얼을 항상 기억해주기 바란다"면서 "앞으로 남원시 얼굴이자 문화관광 홍보대사로서 다양한 활동을 기대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지난 27일 남원 완월정에서 치러진 제93회 전국춘향선발대회에서 김주희 양(22, 전북 전주, 목원

대학교 국악과 재학)이 춘향 진으로 뽑혀 대한민국 최고 미인으로 등극했다. 또 선에 신아림 양(22세, 경기도 용인시,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휴학), 미에 신서희(21세, 서울시 영등포구, 경기대학교 연기학과 재학), 정에 원재영(23세, 서울시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영상연기학과 재학), 수에 홍다솜(23세, 서울시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 방송연예과 재학), 현에 이가연(24세, 경기도 광명시, 가천대학교 연기예술학과 졸업), 우정상에 안자은 양(24세, 서울시 서초구, 연세대학교 체육교육학과 재학)이 각각 뽑혔다.

이남출/기자

장흥군, 농특산물 베트남 수출 '쾌조 출발'

장흥군은 지난 24일 베트남 달랏시에 2000만원 규모의 장흥군 농특산물을 수출했다고 밝혔다. 수출 품목은 김, 미역 등 해조류다. 이번 수출은 5월 초 마이 꾸엔 트레이딩(베트남 달랏)과 수출협약을 체결한 후 첫 번째 물량이다. 장흥군(정남진장흥직거래지원센터)은 베트남 달랏시 청년마트에 이미 두 차례 수출한 실적이 있다. 마이 꾸엔 트레이딩은 달랏시 청년마트에 5월 11일 '장흥군 특산물 판매센터'를 개관했다. 이곳에서는 장흥군 무산김, 표고버섯, 농수산물 가공품 등을 전시 판매하고 있다. 장흥군 이번 수출협약을 통해 향후 5년간 100만달러의 장흥군 농특산물을 수출할 예정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수출을 통



해 장흥군 농특산물 판로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것 기대한다"며, "기업 및 농가의 수출품목 일관화로 '장흥군 수출 플랫폼'을 구축하기 동남아, 유럽 등지로 수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군에서는 이번 물축제 기간동안 해외바이어 초청을 통해 우리 농특산물과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수출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박재원/기자

완도군, 뜨거운 열정과 감동의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폐막

종합 1위 여수시, 2위 순천시, 3위 목포시

전남 완도군에서 설군 이래 최초로 개최된 '제31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가 지난 26일 폐회식을 끝으로 3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했다. 제31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는 16년 만에 완도군에서 개최되며, '제31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22개 시군 선수단이 21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쳤다. 대회 결과 여수시가 종합 1위, 순천시가 종합 2위, 목포시가 종합 3위, 영광군이 종합 4위, 광양시가 종합 5위, 완도군이 종합 6위, 나주시가 종합 7위, 해남군이 종합 8위를 차지했다.



입장식 때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선수단에게 수여하는 입장상은 영광군이 1위, 완도군이 2위, 나주시가 3위를 차지했으며, 작년보다 종합 순위가 향상된 시군에 수여하는 성취상은 완도군이, 모범선수단은 강진군이, 장려상은 고흥군이 수상했다. 최우수 선수는 볼링 종목에서 3관왕을 달성한 광양시 김은유 선수가 선정됐다. 특히 개최지 완도군은 '종합순위 6위'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성적이라

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는 지난 2021년 완도군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된 이후로 최대 규모인 205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이뤄낸 것이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신우철 조직위원장(완도군수)은 환송사를 통해 "대회를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승패와 상관없이 아름다운 승부

양영욱/기자

광양시, 「명품 광양매실」 첫 출하 본격 개시

과원 정지·전정 지원 등 상품성 높은 매실생산과 생산비 절감 지원 홈쇼핑 판매 등 다양한 판촉 활동 전개로 안정적인 판로확보에 노력

전라남도 광양시는 지역특산물 명품 광양매실 본격 시장출하를 위한 첫 출하식을 지난 23일 광양원에농협 다압매실선별장에서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인화 광양시장,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농협중앙회전남지역 부분부장, 농협광양시지부장, 지역 내 지역농협장 등이 참석해 매실 선별작업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출하 농가들을 격려했다. 올해 광양매실 생산량은 개화기 이상기온과 꿀벌 활동 감소로 인한 수정 불량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매실 작황이 급감하여 전년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5천여 톤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광양매실은 다른 지역 매실에 비해 구연산 함량이 높고 향이 진해 색깔이 선명한 것이 특징이며, 지리적 표시제 등록(제36호), 매실 산업 특구로 지정받아 2015년부터 한국브랜드경영협회가 뽑은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브랜드 대상에 8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등 대한민국 최



고의 명품 매실로 신뢰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시는 명품광양매실의 명성 유지를 위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매실 과원 정지정전 인력 지원, 매실동력전정기 지원, 직거래 포장재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광양매실 소비 확대를 위해 홈쇼핑 판매 지원, 장마철 가공용 매실씨 분리기 보급, 소비자 홍보 등

다양한 판촉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광양매실의 상품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 다양한 홍보 및 판촉 활동 등 시책을 적극 추진해 명품 광양매실의 명성을 유지하고, 매실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승준/기자

주민 목소리 응답한 강기정 광주광역시, 자치구 소통 행보 활발

"시장님,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어주세요!" "사람"을 최우선하는 정책으로, 시민 개개인의 '내 삶'을 돌보겠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시민들의 목소리에 직접 응답했다. 강 시장은 '자치구 소통의 날'을 순회 개최하며 활발한 소통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26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주민 160여명을 만나 민선 8기 시정방향에 공의하고, 현장 대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자치구 소통의 날은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장이다. 특히 자연스러운 분위기의 타운미팅(주민참여의 한 형태로, 공공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주민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한다. 이날 주민들은 발산마을과 뽕뽕다리, 양동시장 등 인근 지역자원과 연계한 발산근린공원 조성, 서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인공지능(AI) 기반 어린이상상놀이터 건립, 서구 자원회수센터 직원쉼터 보수 등 광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민선 8기 광주시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영산강·황룡강 Y벨트 사업과 연계한 서창 역사축제 주변 관광기반 확충, 파크골프장·테니스장 등 생활체육시설 조성 등을 건의하고 광주시와 서구가 정책적 협력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상무2동 주민들이 동요 '문어의 꿈'을 개사해 주민이 바라는 서구의 모습을 공원으로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주민과의 현장대화 후 강 시장은 광주시 정책 방향을 밝히고, 무엇보다 '사람'에 초점을 맞춘 정책 수립 및 예산 지원 등을 약속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소통의날을 개최하기 전에 서구민의 바람을 미리 살펴보고 여러 차례 공직자들과 머리를 맞대 공부하고 고민했다"며 "현장 목소리에 기반해 어린이·장애인·노동자 등 무엇보다 '사람'을 가장 우선하는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가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삶'이 행복하고 개개인의 삶을 돌보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며 "소통의 시작은 공감이고, 소통의 완성"은 정책으로 실현되는 만큼 앞으로 진솔한 대화를 통해 시민 눈높이에 맞춘 정책 실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광주다움 통합돌봄, 군공항이전 등 민선 8기 광주시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변화를 위해 함께하겠다"며 "소통의 자리를 통해 서구와 광주시가 구한안을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게 돼 기쁘다. '함께서구, 우뚝서구'를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양향자·김경만 국회의원, 명진광주시의회 의원, 윤정민·김옥수·오미선·김근호 서구의회 의원, 김용섭 서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주민 등이 참석했다.

김병수/기자

영광군, "청소년과 통(通)하다"

강종만 군수와 청소년이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영광군은 지난 2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3년 '찾아가는 혁신소통의 날-청소년편(강종만 군수와 청소년의 토크콘서트)'을 개최했다. 이번 '찾아가는 혁신소통의 날(토크콘서트)'은 청소년들이 또래의 시각에서 지금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정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지, 눈높이에 맞는 제안이 자유로이 함으로써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영광군과 청소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수렴하고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현장참여자 약 70여 명이 참석과 더불어 지난 청년편과 마찬가지로 유튜브 실시간 방송(최대 동시접속자 수 약 230명)을 통한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참여의 폭을 확대했다. '1부' 강종만 군수와 청소년의 토크콘서트에서는 'Never, Never, Never give up!'이란 주제로 누구나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는 실패와 좌절의 순간이 있을 때 절대 포기 말라는 이야기를, 2부에서는 청소년들의 군정에 대한 특목 튀는 아이디어 및 정책 제안,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고, 격식과 틀에 구애 없이 자유롭게 토의하는 '타운 홀미팅' 방식으로 제안 및 논의했다. 강종만 군수는 "청소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리며, 이렇게 영광군과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군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감사하다"라며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6월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경찰, 소방, 군인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를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동순/기자

경북교육청, 초등 맞춤형 온·오프라인 컨설팅 역량을 높인다!

초등 도단위 장학·교육과정 지원단 역량 강화 연수 실시

경북교육청은 지난 25일(목),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장학지원단 및 교육과정 지원단,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170여 명을 대상으로 '초등 도단위 장학지원단 및 교육과정 지원단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학생 주도형 수업, 질문이 넘치는 교실'이라는 주제로 초등 장학지원단의 장학 역량 제고와 교육과정 지원단의 과제 중심 학교 현장 밀착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인교육대학교 정혜승 교수의 '학생 주도성을 살리는 질문 수업 방안'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시작으로, 장학지원단 및 교육과정 지원단 운영 계획 안내, 구미원당초등학교 김홍일 교감의 초등 학생 중심 미래형 교육과정 컨설팅 방안, 장곡초등학교 윤은애 교감의 성찰 중심 수업 나눔 문화 정착을 위한 장학 방안 순으로 연수를 진행했다.

'장학지원단'은 장학 희망교에서 해결하기 원하는 다양한 현안 과제를 사전에 요청받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팀을 꾸리게 되며, 지원팀은 해결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한



후 직접 학교를 방문해 수업 및 교육 과정에 적용하는 방법을 구체화하는 컨설팅을 실시한다.

'교육과정지원단'은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내실화, 학생 중심 미래형 교육과정 9대 과제,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컨설팅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지원단들이 현장 컨설팅 외에도 학교 현안에 따라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수업나누리(수업지원포털시스템)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수업나누리는 학교에서 필요한 자

료를 게시판으로 요청함과 동시에 지원단 SMS서비스 문자와 연동해 즉시 신속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장학지원지원단과 교육과정지원단의 영역별 책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도단위 장학지원단과 교육과정 지원단은 학교 현장에 바로 투입되는 핵심 지원 인력인 만큼 지원단의 전문성을 길러 학교의 현안 해결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2023학년도 제주도 진로 테마 수학여행 실시

제주도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 넓혀

영광고등학교에서는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22일(월)부터 25일(목)까지 제주도 진로 테마 수학여행을 실시했다.

학교에서 평소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고 감상하는 산 교육을 경험했으며, 질서를 지키고 인화 협동하는 공동생활을 통해 상호 간의 우정을 돈독히 하는 실제의 경험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학창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을 쌓음으로써 내일의 보람을 미래 희망적인 꿈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수학여행에 참가한 학생들은 용머리 해안, 성산일출봉, 우도, 한림공원에서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감상하고, 제주 4.3 평화기념관과 제주민족자연사박물관, 이중섭미술관을 견학하여 제주의 역사 문화적인 특성에 대해 파악했다. 또한 카트



체험, 제트보트 체험, 아쿠아리움 방문 등 평소 해보지 못한 이색 체험을 통해 경험을 확장하였다.

수학여행에 참여한 부학생회장 권기승(18)군은 "코로나 19로 인해 중학교 때 수학여행을 다녀오지 못했

다. 태어나서 처음 수학여행을 다녀왔는데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 소감을 밝혔다.

윤근수/기자

2023『내 고장 청송 얼 찾기 탐방』체험학습

- 늘푸른 청송에서 선조들의 어질고 지혜로운 얼을 본받다!

- 이호경 교육장, "예술인·문인을 배출한 청송인의 자부심갖고 생활하길" 당부해

청송교육지원청은 지난 25일(목), 관내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 고장 청송 얼 찾기 탐방』 체험학습을 실시하였다. 이번 체험학습은 청송초를 시작으로 학교별로 3차로 나누어 6월 8일(목), 6월 15일(목)에도 이어진다.

이번 행사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청송 지역 문화유산 탐방하고 학교별 희망 체험활동을 한다. 1차(5월 25일)는 청송초를 대상으로 지질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주왕산 탐방을 하였고, 백자 전시관을 둘러보며 아이디어를 착안하여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한 핸드페인팅 백자 만들기 활동을 하였다.

2차(6월 8일)는 진보초, 파천초 대상으로 청송 한지를 이용한 나만의 보석함 만들기 체험활동을 하고 진보향교로 이동하여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3차(6월 15일) 이전초, 부남초, 도평초, 화목초, 안덕초는 1차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청송교육지원청 이호경 교육장은 학생들에게 '청송의 선조들은 어질고 지혜로우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예술인과 문인을 많이 배출한 고장

인 만큼 학생들은 미래의 리더임을 자각하고 청송인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생활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윤근수/기자



하윤수 교육감 26일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선수단 격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지난 26일 오후 울산광역시에서 열린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경기장을 방문해, 선수단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하윤수 교육감은 울산 중구

야구장에서 수영초 야구부 선수단을, 문수실내수영장에서 수영선수들을, 울산 남부초에서 경남여중 배구부 선수단을 각각 격려했다.

한편, 이 대회는 대한체육회에서

주최하고 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교육청·울산광역시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전국규모의 종합체육대회다. 전국 17개 시도의 약 1만 2천여 명 초·중학생들이 참가했다.

송준진/기자

춤에 관심 있는 친구들 도전하세요

- 경남교육청, 학생 춤 영상 공모제 '춤꿈꿈'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
- 초·중고 학생에 문 활짝...매월 3개 팀 선정 각 30만 원 지급

경상남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학생들의 정서를 회복하기 위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춤 영상 공모제 '춤꿈꿈'을 연다.

'춤꿈꿈'은 '춤으로 꿈꾸자'라는 주제로 경남의 초·중·고 학생들이 춤으로 자신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장이며 건강한 청소년의 문화 활동을 이끌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모제에 관심 있는 청소년은 1분 미만의 춤 영상 작품을 누리집(<http://www.gne-dance.kr/>)에 올리면 된다. 또 인스타그램

에 올리면 된다. 또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해시태그(#경상남도교육청, #경남교육춤, #춤꿈꿈, #2023댄스타페스타)를 달아 올려도 된다.

공모제는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진행하며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곡과 의상 선택, 춤 형식은

자유롭다. 참가자는 매월 공모제에 도전할 수 있지만 똑같은 춤 영상을 제출할 수 없다.

경남교육청은 매월 우수상 2명(팀)과 인기상 1명(팀)을 뽑아 상금 각 30만 원을 지급한다. 심사 기준은 주제, 동작, 구성, 누리 소통망(SNS) 조회수, 누리 소통망 좋아요수로 평가한다. 1차 접수 기간은 6월 12일~17일이며, 우수작 발표는 6월 30일이며, 우수 작품은 경남교육청 유튜브, 인스타그램에 게시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이중섭 홍보담당관은 "코로나19로 위축된 학생들의 정서를 회복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이끌고자 춤 영상 공모제를 마련했다. 춤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도전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장재현/기자



문화

Welcome to 문화!

문화군에서 함께 살아요!

<p>전입축하금 지원(봉화사랑상품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입 시 10만원 전입 후 1년 경과 20만원 지급 2023. 1. 1. 이후 전입자부터 지원 * 문의 :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 679-6143 	<p>전입 청년 주택임차료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세 ~ 49세 청년 전입자 월 10만원씩 최대 3년 지급 2023. 4. 17. 이후 전입자부터 지원 * 문의 :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 679-6143
<p>가업승계소상공인 정착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세 ~ 49세 가업승계 소상공인 월 100만원씩 최대 3년간 지급 * 문의 : 인구정책과 일자리창출팀 ☎ 679-6188 	<p>가업승계농 정착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세 미만 가업승계 농업인 월 100만원씩 최대 3년간 지급 2023년 하반기 중 시행 예정 * 문의 : 농업기술과 기획교육팀 ☎ 679-68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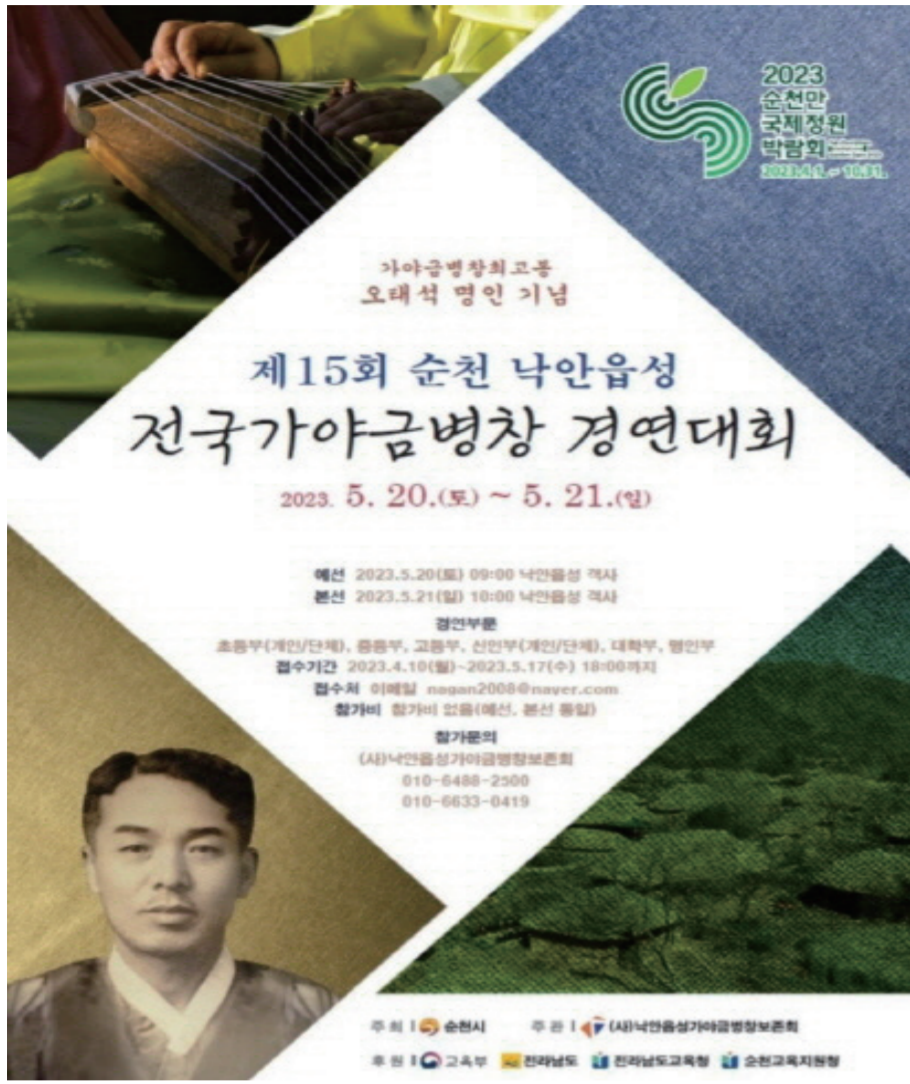
인구 3만+

봉화사랑! 주소찾기 운동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입니다"

봉화군

순천 낙안읍성 전국 가야금병창경연대회 성료!



전라남도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주최하고 (사)낙안읍성가야금병창보존회가 주관한 제15회 순천 낙안읍성 전국 가야금병창 경연대회가 낙안읍성에서 지난 20일과 21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경연대회에는 전국 초등부(개인·단체), 중등부, 고등부, 신인부(개인·단체), 대학부, 명인부 등 8개 부문 88팀 113명 가야금병창 최고의 연주자들이 출전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심사는 박애숙 심사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심사위원이 맡았다. 심사위원은 가야금병창 문화재 보유자 또는 가야금병창 이수자 등 국악계 권위 있는 전문가로 구성, 공정하게 심사했다. 심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자동집계 시스템으로 평가 예선·본선 경연이 끝난 후 각 출전자들의 점수를 현장에서 공개해 참여자와 관객 모두가 함께 공감한 대회였다.

본 대회 영예의 대상(국회의장상)은 명인부 이경아(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상, 상금 200만 원과 부상으로 300만 원 상당의 가야금 1대를 받았다. 명인부 금상(국무총리상)은 김혜련(전라북도 전주시), 대학부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은 이슬비(중앙대학교), 고등부 대상(교육부장관상)은 유하영(국립전통예술고), 신

인부 단체전 대상(전라남도지사상)은 진영숙 황영덕 김선자(전라남도 순천시), 신인부 개인전 대상(전라남도지사상)은 정나라(백석대학교문화예술대학원), 중등부 대상(전라남도교육감상)은 정세빈(노변중학교), 초등부 단체전 대상(전라남도교육감상)은 정가현 임여빈 이정은(소리다울), 초등부 개인전 대상(전라남도교육감상)은 임여빈(산현초등학교) 등이 수상했다.

(사)낙안읍성가야금병창보존회 오찬환 명예이사장(오태석 명인 손자)은 축사에서 "오태석 할아버지가 태어나고 자란 낙안읍성에서 가야금병창 전국대회가 15회째 개최되고 있어 감사하다"며 "가야금병창 분야에서 열리는 이 대회의 훈격이 대통령 상으로 격상되었으면 한다"라고 염원의 뜻을 밝혔다.

노 시장은 시상식에서 "낙안읍성에서 전국 가야금병창 경연대회를 통해 오태석 명인을 기리기도 하고, 후학들이 배출되는 좋은 장이 되고 있다"라며, "요즘 많은 사회적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가 문화의 힘이다. 순천시는 앞으로도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하겠다"라고 밝혔다.

강릉시, 안전이 최우선! '단오 보우하사' 행사 준비 착착

강릉시는 지난 24일 신주빛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단오제 일정이 시작되어 안전하고 성공적인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오는 26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행정지원단 준비상황보고회를 실시한다.

이번 준비상황보고회에서는 변화되는 여러 상황을 감안하여 분야별 세부 추진사항과 장비·인원계획 등에 대해 업무소관별로 행정지원단장인 김중욱 강릉부시장에게 직접 보고한다.

6월 3일 진행되는 대관령국사성황제 이후 본격적으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공연 및 체험 등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분야별로 체계적인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협의하는 자리를 가진다.

아울러 종합상황실운영을 통해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돕고 관광객 유치와 홍보에 나서며, 행사장의 안전 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한 환경 조성을 책임진다.

또한, 안전사고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인 강릉경찰서, 강릉소방서, 강릉교육지원청의 실무부서장이 참석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각종 지원사항을 논의한다.

특히, 올해는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단오제단(굿당)이 단오행사의 중

심위치(기존 아리마당)로 옮겨지고, 메인행사인 21개 읍면동 길놀이 퍼포먼스도 기존 남산교에서 성내동 광장으로 이동함에 따라 그 어느 해보다 안전분야를 최우선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강릉경찰서의 교통 및 주차통제 지원, 안전을 위한 순찰 강화와 강릉소방서의 시설물 합동지도 및 점검, 강릉교육지원청의 행사기간 학생체험학습 독려 및 안전망 구축 등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신주미 봉정행사의 시민 참여도는 지난해 4,044세대 참여에 비해 160% 이상 증가한 6,527세대가 동참하는 등 문의 전화도 많아 그 어느 해보다 많은 인파가 단오행사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올해 강릉단오제는 한층 더 다채로워진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마련했으며, 많은 인파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체제를 구축하는 등 안전을 제1로 하는 행사로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올해 강릉단오제는 오는 6월 18일부터 25일까지 강릉 남대천 일원에서 '단오, 보우하사'를 주제로 개최된다.

이승준/기자

이원형/기자

박완수 도지사, 부처님 오신 날 통도사 봉축법요식 참석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 맞아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남 기원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도내 사찰 곳곳에서 봉축법회가 열렸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양산시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본사 영축총림 통도사 봉축법요식에 참석했다.

봉축법요식에는 조계종 중정 성파스님, 현덕 주지스님을 비롯한 영축총림 사부대중 및 신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도사 내 설법전에서 삼귀의, 반야심경, 헌화 및 관불, 성파 중정스님의 봉축법어, 박완수 도지사의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박완수 도지사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우리 사회가 갈등과 분열을 넘어 상생과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경남도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도민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민생을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통도사를 찾은 많은 불자들은 저마다 소원 성취와 가족의 건강을 빌며 오색빛깔의 아름다운 연등을 달



있고, 나라의 안녕과 국민의 화합을 기원하며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최만림 행정부지사는 해인총림 합천 해인사를, 김병규 경제부지사는 쌍계총림 하동 쌍계사를 각각 찾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을 함께 축하했다.

장재현/기자

충남도, 도교 중심가에서 대백제전 '활짝'

충남도가 일본 도교 중심가에서 오는 9~10월 공주·부여 일원에서 개최하는 대백제전을 알렸다.

도는 25일 메트로폴리탄 도교 이케부쿠로 호텔에서 한일백제문화교류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태홍 지사와 도의회 양경모 의원, 박범인 금산군수, 일본 국토교통성 관계자와 여행 전문 언론 기자, 관광업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한국K-POP고등학교 문화공연, 대백제전 홍보 영상 및 백제문화제 하이라이트 영상 상영, 대백제전 소개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김태홍 지사는 도교 기약무용단 미마지 공연을 거론하며 "미마지탈에는 일본과 한국 사람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라며 "1000여 년 전부터 얼굴을 마주하고, 마음을 나눴던 양국 국민들의 표정이 미마지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백제 역사의 고도인 공주·부여 두 도시에서 일본인과 한국인들이 서로 우정을 나누고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금산세계인상축제도 동시에 열어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라며 대백제전과 금산세계인상축제에 대한 일본

각계각층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특히 KBS 재팬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일본 내 대백제전 홍보 발판을 마련했다.

김 지사와 김정균 KBS 재팬 대표이사가 맺은 협약에 따르면, 도와 KBS 재팬은 백제문화제 및 백제문화 홍보 마케팅에 적극 협력한다.

도는 KBS 재팬이 추진하는 일본 행사에 협력하고, 백제문화제 및 백제문화제를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해 활용키로 했다.

KBS 재팬은 한류 드라마와 한국의 뉴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등 KBS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편성해 일본에 24시간 전일 중인 한국 전문 종합 엔터테인먼트 채널이다.

대백제전은 오는 9월 23일부터 10월 9일까지 공주와 부여 일원에서 '대백제, 세계와 통(通)하다'를 주제로 개최한다.

대백제전 주요 행사로는 디지털 실감 아트 쇼, 수상 홀로그램 쇼, 삼국문화교류전 주제관, 백제 비전 선편 퍼포먼스, 수상 멀티미디어 쇼, 금동대향로 아트 전시관, 친환경 프로그램, 개막식 및 폐막식 등이 있다.

최정근/기자

www.k-oceans.co.kr

2023 대한민국 해양수산엑스포

해양수산엑스포

Korea Oceans and Fisheries EXPO 2023

5.31수-6.2금 경주화백컨벤션센터 (HICO)

해양수산 산업의 미래

명품 '붉은 대게' 먹고 가시'게'~

명품 '붉은 대게' 매일 1,000마리를 무료로 즐겨보세요!
 참여 : (사)경북붉은대게통발협회
 수량 : 매일 1,000마리 (행사기간 중)

토속 관상어 전시

여러 종의 관상어 구경하고 금붕어도 무료로 분양하세요~

★ 참관 포인트

신선한 수산물·수산 식품을 한자리에서!
 - 내고향 수산물 판매전, 수산식품 시식행사, 간편식 모음전 등

바다와 만나는 시간!
 - 해양수산 체험관, 토속어류 / 민물고기 특별관, 귀여귀준 / 어촌특화 특별관, 해양헬스케어 특별관, 해양환경 특별관 등

올해 여름 휴가 준비, 해양수산엑스포에서!
 - 해양·수상레저 특별관 (요트, 보트, 제트스키), 지자체 관광지 등

해양수산 전문가 초청 포럼·세미나
 - 구매상담회, 해외 수출 상담회, 기술 시연회 등

[주최]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주최] 경주시 GYEONG JU
[주관] mire 원동해산업연구원
[주관] EXCO
[후원] 해양수산부

대한민국 해양수산엑스포 사무국

문의 | 053.601-5256

자세히 알아보기



www.yyg.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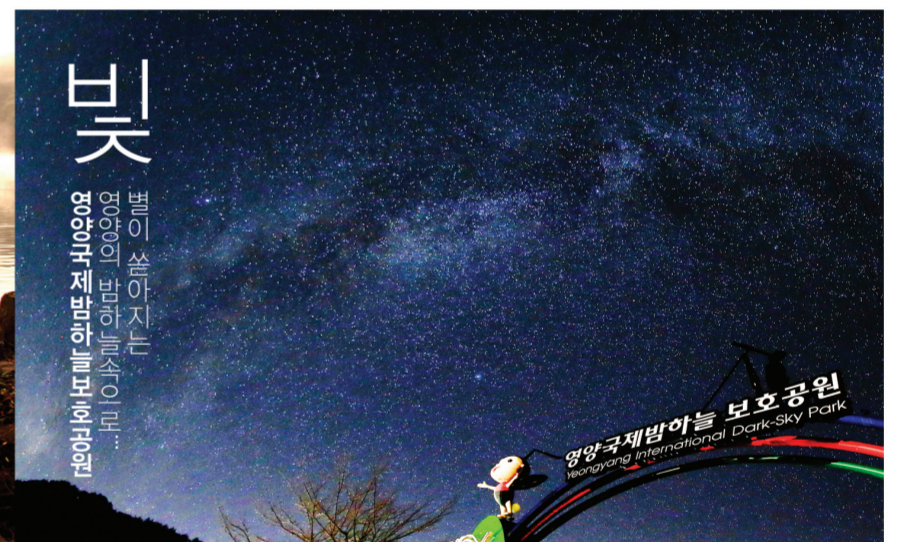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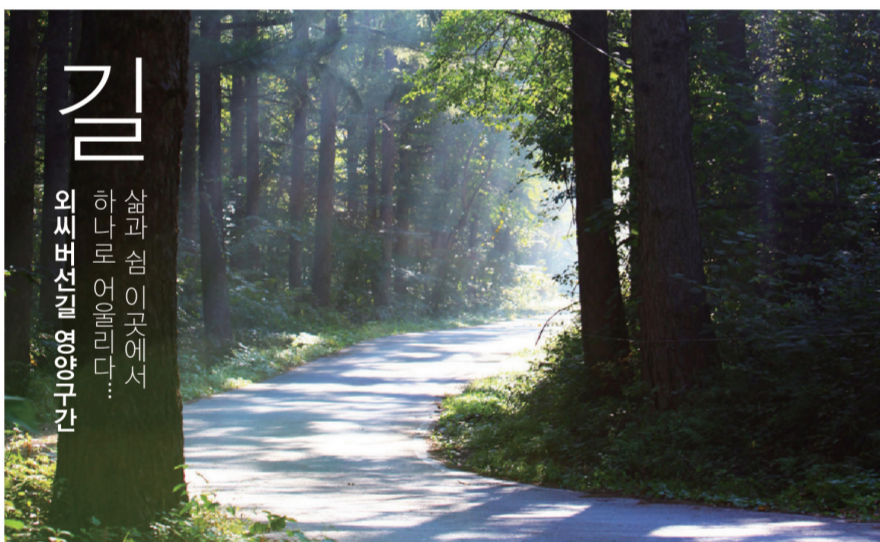
영양 들어다보시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ZOOM

들어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아온 **영양**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_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침벽공원, 측백수림, 외씨버선길
- **영양의 역사**_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_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생화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양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